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진실 규명을 위한 제주4·3사건 포럼

발표 주제

- 제11연대 제주4·3폭동 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
-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

-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주최 :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 제주 4·3 사건 포럼

목 차

■ 초대의 말씀 / 이승학	5	
■ 행사순서	6	
[발제 1] 제11연대 제주 4·3 폭동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		
-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4·3 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 박철균	7	
[토론 1] 나종삼 (전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	42	
[토론 2] 박홍균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유족회장)	48	
[발제 2]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 / 정안기		53
[토론 1]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63	
[토론 2]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상임대표)	69	

● 초대의 말씀

올해는 폭동과 반란인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5주년이 됩니다. 제주4·3사건은 제주의 현대 역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6·25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사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역사상 그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 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되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안위 소속)은 지난 3월 9일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 벌칙조항도 개정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학문연구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왜곡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제주 4·3 사건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4. 5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제주4·3사건포럼

대표 이승학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진실 규명을 위한 제주4·3사건 포럼

- 주제 : “제11연대 제주4·3사건 폭동 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
“제주4·3사건 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
- 목적 :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제주4·3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 주최 :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제주 4·3 사건 포럼

● 좌장 : 류석춘(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00 ~ 14:30	등록 및 준비	
14:30 ~ 14:35	축 사	김학성(강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4:35 ~ 15:00	발 제 1	제11연대 4·3폭동 진압과 연대장 암살 박철균(정치학 박사)
15:00 ~ 15:20	토 론 1	나종삼(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박홍균(고 박진경 대령 유족회장)
15:20 ~ 15:30	중간휴식	사진촬영
15:30 ~ 15:55	발 제 2	제주4·3폭동진압과 앵그리 중령들 정안기(경제학 박사)
15:55 ~ 16:15	토 론 2	이주천(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이승학(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상임대표)
16:15 ~ 16:30	종합토론	참석자 질의 응답 등

[발제 1]

제11연대 제주 4·3 폭동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¹⁾

-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4·3 사건부터 박진경 대령 암살까지 -

박 철 균(정치학 박사)

순 서

I. 들어가는 글 /

II. 왜 박진경인가? /

III.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과 박진경 대령 작전개념

1.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 / 4 2. 박진경 대령 작전개념 / 9

IV. 박진경 대령 부임 전 제주도 전장 실상 / 9

V. 박진경 대령 왜곡

1. 4·3 사건 학살의 주범 / 11

2. 포로 고문·학살 / 13

3. 9연대 41명 집단탈영 동기 / 17

4. 박진경 대령 암살 동기 / 19

VI. 맺음말 / 24

I. 들어가는 글

제주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은 4·3 사건 초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폭력으로 방해했던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무장 폭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국가 공권력을 왜곡하여 적대시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왜곡의 중심에 박진경 대령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또 제주도민이거나 도민이 아님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처이고 아픔이며 함께 화해하고 치유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화해와 치유에는 어떤 집단이나 진영의 이익이나 희망적 선입관을 초월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과 이에 대한 인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각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본고는 제주 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에서 소장 중인 자료와 서적,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근거와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고자 하였다.

내가 제주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김일성 일가의 왕조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면 4·3 사건 당시 미군정 당국과 조선경비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 작전은 매국적인 극악·반동적 행동이며 숙청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무장 세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작전은 건국을 위한 애국적, 영웅적 군사작전이다.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과 그들의 무장세력인 인민유격대가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제주도는 대혼란으로 치달았다. 남로당 공산 무장세력²⁾들의 무차별 린치와 살육으로 제주 전체의 치안 질서가 흔들리는 극도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당시 제주 도내의 민간 치안 세력만으로는 사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조선경비대³⁾를 투입하기로 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던 제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 당국의 명에 따라 1948년 5월 6일 제주도 9연대장⁴⁾으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할 때까지 정확히 4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후방지역 작전 중의 하나인 대유격작전⁵⁾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지휘관이다. 박진경 대령은 우선 빈약한 참모조직을 정비하고 병력을 충원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 박진경 대령은 공산 폭도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주민이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보호 지침을 하달했다.⁶⁾ 성과는 없었으나 공산 세력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했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수장인 김달삼과의 귀순 회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작전 보안을 유지하고 기습적으로 유격기지를 습격하여 일부 전과를 올렸다. 작전 간 체포된 포로들은 대공 용의점 파악과 유격대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합동심문조에 보냈다. 미군정 당국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유격작전이었다. 이러한 그의 작전 결과로 산중의 인민유격대 기지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박진경 대령은 강인한 체력과 희생정신으로 작전에 몰두했다. 제주도사태의 안정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멸사봉공의 충성심의 발로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전이 한창이었던 1950년 12월 30일 박진경 대령의 공훈을 기려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박진경 대령을 호국전몰용사 공훈

2) 제주도 남로당 공산 무장세력의 공식 명칭은 인민유격대, 본 고에서는 폭도, 유격대, 인민군 등도 같은 용어임. 남로당의 유격기지가 주로 한라산 쪽에 있어서 산(山)측의 산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음.

3) 남로당 문건에는 국방경비대로 쓰기도 했다.

4) 5월 15일 11연대가 추가로 제주도에 투입되면서 9연대와 합편 되고 11연대의 연대장으로 보직됨.

5) 현재 교리상의 용어이며, 대계릴라작전, 공비 토벌작전 등의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

6) 2003년 12월 본인은 채명신 장군과 남대문 인근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 중 채명신 장군은 자신이 제주도 소대장 시절 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의 주민보호 지침에 영감을 받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시절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베트남 주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언급했다., 2001.4.2. 박진경 대령 추모식 중 채명신의 추모사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록에 기록하였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⁷⁾ 백선엽 장군은 박진경 대령의 53주기 추모식에서 박진경 대령을 국군의 초석이요 국가를 목숨으로 지키신 초창기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장되기 시작하였다. 마타도어식 용어 혼란 전술과 문장과 문구 왜곡을 자행했다.

현재는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사건 학살의 주범이니, 포로를 고문하고 학대하였으며 무차별 살상 명령을 내렸고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여 연대병력이 탈영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남로당 지시로 조선국방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였던 문상길 중위 일당의 박진경 대령 암살을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 행동으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참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본 고에서는 먼저 왜 박진경 대령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미군정의 조선국방경비대 투입 배경과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을 설명하고, 4·3 사건의 발생 원인과 박진경 대령 관련 왜곡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과 객관적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하고자 한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은 4·3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2차 가해이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립의 출발점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II. 왜 박진경인가?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5월 6일에 부임했다. 이 시기는 미군정 당국이 제주도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4·3 사건에 개입하려는 결정을 한 시기이다. 박진경 대령은 오사카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여 영어 능력이 탁월했다. 1944년 동 대학 졸업 후에는 일본의 학도특별지원병으로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⁸⁾

박진경 대령은 미국 야전교범을 번역하였고 조선 경비대 부산 5연대 근무 시절 미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등 미군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웠다. 박진경 대령은 조선 경비대의 누구보다 더 미군정 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호국전물용사 공훈록 책 번호3에 수록되어 있고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397&siteId=imhc&menuUIType=sub>

8) 박진경 대령은 치바현에 있는 마쓰도 공병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 일본군 요새 구축 중, 해방되어 귀향하게 된다.

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을 구실로 좌익에서는 미군정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인물로 묘사하고 박진경 대령과 미군정 당국의 관계를 일치화시킨다. 왜곡된 주장에서 항상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의 무차별한 강경 진압 작전을 선두에서 지휘한 인물이다. 또 무차별 사살, 포로 고문, 학살 등 일반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 들을 박진경 대령과 연루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을 왜곡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미군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노력과 제주도사태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당시 미군정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회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애국적인 노력을 했으나 좌 편향적인 시각은 그 본질적 의도와 사실관계를 덮어버리고 미군정 당국을 왜곡된 사실로 포장하여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 작전이 주민을 탄압하고 무고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4·3 사건 진압과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군정 당국의 조치 들이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이행되는 남로당 무장세력들의 폭력적 투쟁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박진경 대령의 강압 작전에 반항하여 제9연대 장병 41명이 탈영을 감행⁹⁾했다는 주장, 그리고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박진경 대령을 살해했다는 저들의 주장에 모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크게는 4·3 사건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진행되는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폭력적 반란도 모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으로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선거 방해 공작으로 강제 입산 된 주민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기지로부터 풀려났으며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조선국방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에 의한 박진경 대령 암살은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조선국방경비대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군정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작전에 임하게 된다.

박진경 대령의 작전과 박진경 대령의 순국은 4·3 사건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좌익의 모자를 쓰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처지에서 생각하면 박진경 대령이 더없이 불편하고 미운 존재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 왜곡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신보 1952년 10월 24 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내(來) 11월 7일 고 박진경(朴珍景)대령 추도비 제막식이 거행된다. 4·3사건 발발 당시 11연대장으로서 공비토벌과 민심선무에 많은 공훈을 남긴 고 박진경대령을 추도하여

9) 실제로는 조선 경비대 내 남로당 프락치들의 계획적인 행동, 본론에서 자세히 후술 됨.

앞서 도내 각 기관장과 유지들이 회합, 총장 9척의 자연석비를 건립기로 결정하였음은 기보(既報)한 바이거니와 그간 군경원호회를 비롯한 각계의 진력으로 공사는 예정보다 급속한 진척을 보아 석비 조각을 완료, 수일내에 제주방송국 내에 건립될 것이다. 이 건립장소는 고(故) 박(朴)대령이 전사한 장소인 것이다.”

위 기사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이 진행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당시에는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들의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 없이 좌익들의 4·3 사건 전체의 왜곡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Ⅲ.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과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

1. 미군정 당국의 대유격작전 실시 배경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했다. 美 군정 당국은 4·3 사건 이후 초기 상황을 ‘치안상황¹⁰⁾’으로 판단하였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조선경비대를 투입하게 된다. 그리고 공산 무장세력에 대한 대유격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당시 박진경 대령의 작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50여 명의 반란으로 제주도의 12개 경찰 지서와 우익단체 간부 등이 습격당하여 하루 동안 15명(우익인사 8, 경찰관 4, 무장대 3)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봤다.¹¹⁾ 미제 소총 6정, 일제 소총 1정과 실탄 119발 등 총기와 실탄 등도 노획당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부는 ① 인민공화국 절대 사수, ② 5·10 단독선거 반대, 군정수립 음모 분쇄, ③ 미 점령군의 즉시 철퇴, ④ 경찰대의 일체의 무장해제, ⑤ 응원경찰대의 전면 철수, ⑥ 인민유격대의 합법화, ⑦ 투옥중인 xxx 무조건 전면석방 등 투쟁의 명분을 담은 호소문¹²⁾을 발표했다.

아래 포고령은 4·3 사건 이후 4월 10일에 남로당 무장대가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로 주민들에게 살포한 뼈라(전단)로 호소문의 내용과 유사하나 남로당이 제주도 무력 폭동에 임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 등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¹³⁾

10) 군의 투입 없이 경찰력만으로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

11)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67쪽., 무장대 측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경찰 사망이 10명으로 되어 있음.

12) 이운방, 『4·3사건의 진상』(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자료집 I, 1989. 4.), 218쪽.

13)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29쪽.

포고령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서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하므로서 UN조선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 철퇴시켜 외국의 간섭 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 인민해방군 목적달성을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하려는 극악 반동분자는 엄벌에 처함.
-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 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 친일파 민족반역도배들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관, 대청원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 전 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

4281(서기1948)년 4월 10일

해방지구 완전지대에서, 인민해방군 제5연대¹⁴⁾

남로당 유격대의 포고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극악 반동을 완전히 숙청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¹⁵⁾ 4·3 사건 이후 위 포고령에 따라 저들이 생각하는 반동분자들에 대해 무차별 테러를 계속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5월 10일 선거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주민을 강제로 입산시켰다. 선거 이후에는 일부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저들에게 동조하거나 그간 우익 치안 세력들의 강경 진압 등을 피하고자 산중에 남기도 하였다.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남로당 적대 무장세력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이행하고 있음에도 4·3 사건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 경찰이 진압을 못 하고 사태가 계속 악화하였다. 경찰력만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16일 미군정에서는 조선국방경비대 투입을 결정했다.¹⁶⁾ 美군정은 4월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고 도령을 공표하여 선박 운행을 금지하고 해안을 봉쇄하였으며 자체 경계를 강화하면서 군병력을 투입하는 단계별 대유격작전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¹⁷⁾ 이 당시 딘 군정장관이 제주도 군정

14) 고재우, 『제주4·3 폭동의 진상은 이렇다』1998, 79쪽: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년 10월, 322쪽, 이 빠라는 1948년 4월 21일 모슬포경찰서 통신계에 근무하는 강순형 이강호 순경이 절단된 전화선 연결을 위하여 출동하였는데, 대정읍 보성리에서 상모리쪽으로 80m 지점의 소나무밭 일대에서 29매를 수거하였다.

15)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29쪽.

16) 『조선일보』, 1948.4.17.

관 겸 59 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에게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를 잘 보면 4·3 사건 이후 미군정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 조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1. 귀관은 제주도의 상황에 정통하라.
2. 4월 18일 제주도에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하에 있다.
3. 한국 국방경비대 추가 병력이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시 이 대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4. 귀관은 귀관의 배치에 따라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군부대를 이용하라.
5.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 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6.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 그들을 경비대에 의하여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라.
7. 일일 상황보고를 무선통신으로 본부에 보고하라.¹⁸⁾

첫째,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에 배치된 경찰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락기와 경비대 병력 1개 대대를 추가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 미군과 함께 사태 진압에 나설 대상으로 경비대를 설정하고 있는데 당시 미군의 생각보다는 공산 폭도들의 폭력 사태가 심각하여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5항에 보면 공격 작전에 임하기 전에 소요 집단에 지도자와 접촉하여 항복할 기회(귀순공작)를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소위 4월 말 김익렬·자수·귀순 협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박진경 대령도 남로당 군사총책 김달삼을 만나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귀순 공작 시도가 있었다. 또 하나, 미군정 당국은 무장대 지도자와의 접촉을 귀순 공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귀순공작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항복, 투항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셋째는 당시 사태 악화를 우려하여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로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이른 시일 안에 본토로 후송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극악무도한 상해와 테러는 물론이고 치안 병력의 보복적인 폭력 행위 모두 용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에는 1948

17)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40쪽.

18)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19) 원문에는 "Prior to any large scale offensive action, you will make every effort to contact the leader of the illegal element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urrender."라 되어있음.

년 3월 경찰에 연행되었던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작용했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민심을 동요시켰으며 미군정 당국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므로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은 남로당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4·3 사건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²⁰⁾

미군 문서를 종합해 볼 때, 미군정은 1948년 4월 3일 이후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의한 사태 악화로 인해 조선국방경비대를 투입하여 진압방침을 세웠으며, 강경 일변도의 무차별 진압 작전이 아닌 포로들을 보호하고 또 가능했다면 무장대를 귀순시켜 큰 충돌 없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²¹⁾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작전이 성과가 없을 때는 당시 사태의 안정을 위해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진압 작전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의 수정주의 역사학자인 부르스 커밍스의 뒤를 이은 신수정주의 학자, 존 메릴의 논문인 ‘제주도 반란’에도 딘 군정장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또 박진경 대령에게 단계별 토벌작전과 관련하여 하달한 지침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협상(평화협상)은 딘 소장 방문 후 박진경 대령이 연대의 지휘권을 인수한 후 분명히 이루어졌다. 박진경 대령은 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국으로부터 연대를 지휘하도록 보임되었는데 이는 박진경 대령이 일본군에서 제주도에 근무하여 제주도의 지형과 축성 구조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출발 전에 개인적으로 딘 장군으로부터 반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²²⁾

미군정은 4월 20일에 경비대 5연대 1개 대대, 5월 6일에 경비대 11연대 2개 대대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추진했던 대한민국 단독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가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실패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하자 브라운 대령을 5월 20일경 제주도에 보내 제주도 내 모든 대유격작전을 총지휘하도록 하였다.²³⁾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는 경비대 투입 결정 이후에도 제주도사태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브라운 대령은 5월 22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폭동진압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 아래 지시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들과 민간인 밀집 지역인 해안마을(주민)에는 경찰력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 대한 테러·살해를 금지했다. 조선국방경비대는 제주도 내 인민해방군 즉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또 포로 심문을 위한 심문센터를 설립하고 심문센터에서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여 폭동참가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행정기능 복구 등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태 안정과 주민 보호를 위한 군정 당국의 필수적인

20) 4·3 사건은 남로당 세력이 2월 22일 신천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려는 무장 폭동이었으나 남로당 무장세력들은 1948년 3월의 고문치사 사건이 4·3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21)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41쪽.

22)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1980, Vol. 2. (1980), pp. 139-197,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중 175쪽.,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 文友社, 1963, 4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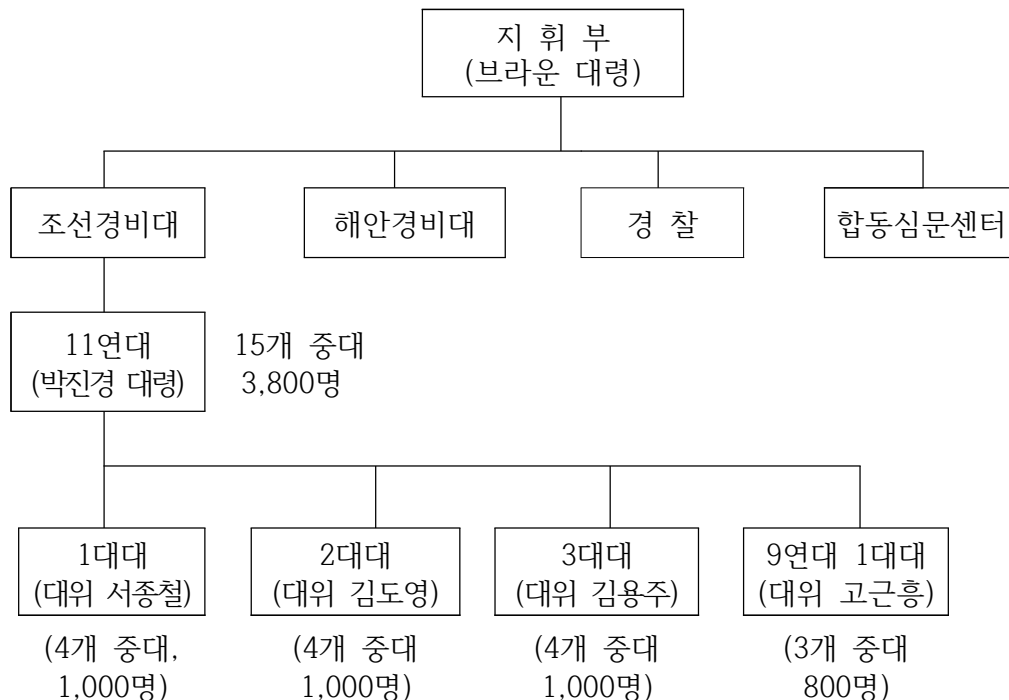
23)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3, US Army Milita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⁴⁾ 무차별 강경 진압이 아닌 단계적 체계적 대유격작전 지침임을 알 수 있다.

1. 경찰은 모든 해안마을을 보호하며, 무기를 소지한 폭도들을 체포하고, (폭도들이)주민들을 테러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 경비대는 제주도 내에 조직된 인민해방군을 진압하라.
3. 경찰과 경비대에 체포된 포로를 심문할 심문센터를 설립하라. 심문센터에서 획득된 정보는 범죄자의 재판에 이용되거나 폭동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된다.
4. 행정 관리들은 경찰과 경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정기능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라.
5. 절단된 전신주를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라.²⁵⁾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라운 대령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내 군경합동 대유격작전을 실시하는 작전 지휘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진압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24)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179쪽.

25) 주한미육군군정청,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Rothwell H. Brown." 1948.7.17.

브라운 대령이 1948년 7월 1일 자로 작성하여 미육군 군정청 사령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는 제주도 폭동진압을 위해 1948년 5월 22일까지 취해진 조치의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지침에 따라 포로에 대한 심문취조실(합동심문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대유격작전의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러한 체계적인 작전 시스템이 구축된 시기는 박진경 대령의 1차 대유격작전이 있기 약 10일 전이었다

2. 박진경 대령의 작전개념

박진경 대령에게 부여된 임무는 미군정 당국의 작전개념과 지침에 따라 제주도에서 대유격작전을 실시하고 도내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딘 장군이 개별적으로 박진경 대령에게 전달했던 무력 최소화 지침, 그리고 전술한 딘 장군의 지침에 따라 우선 김달삼과의 귀순공작 시도도 있었다.²⁷⁾ 그러나 귀순공작이 여의치 않자 단계별 대유격작전을 구상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4·3사건 토벌작전사』²⁸⁾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연대의 작전개념은 우선 제1단계로 선무 귀순공작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여 좌경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대 단위별로 주민 선무공작에 주력하면서 입산 공비들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폭도들이 이에 불응하고 대항해올 때 적극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제11연대가 계획한 제1단계 작전은 주민 자체 방위로서 각 마을 단위별로 마을 주위에 돌담을 구축하여 방벽을 만들고 자위대²⁹⁾를 조직하여 자체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제2단계 작전은 본격적인 공비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경비대는 병력 보충과 작전 체제 구축 등을 마치고 연대의 인민유격대 토벌 작전은 5월 30일에야 하게 된다.

26) 김영중, 『제주 4·3 사건 문과 답』, 2021., 도서출판제주문화, 2021.3판, 357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9권에도 수록되어 있음.

27) 이선교,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08년, 서울: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2002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1쪽.

29)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보조하는 남로당 자위대와 구분되는 우파 자위대인 민보단을 의미함.

IV. 박진경 대령 부임 전 제주도 전장 실상

미국의 중도 성향 역사학자인 Alan. R. Millett는 그의 저서 『The War for Korean War』에서 제주 4·3 사건을 한국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³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4·3 사건이 단순한 폭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³¹⁾을 분명히 지닌 제주도 전체의 잘 구성된 체계적인 공격이었다는 데 있다. 그럼 이런 큰 주장만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한국전쟁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실제 제주도 내에 전투와 교전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주요 상황을 살펴보자.

- 4·3 사건 발생 : 남로당 인민유격대(정예부대와 마을자위대) 350여 명의 반란으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 간부 집 등이 습격당하여 하루 동안에 15명(우익인사 8, 경찰관 4, 무장대 3)이 사망하는 인명피해 발생.³²⁾
 - 4월 7일 : 우익 청년 3명 피살, 남로당에 의한 경찰살해 보상금 걸려(자료집7권, 53쪽)
 - 4월 12-13일 : 우익청년/경찰 3명 피살, 유격대 1명 사살(자료집7권, 54쪽)
 - 4월 13-14일 : 경찰 작전중 1명 피살(자료집7권, 55쪽)
 - 4월 15-20일 : 경찰 1명, 우익 2명 피살, 제주읍 전화선 절단, 전신주 36개 파괴, 경찰 부친 1명 피살, 민간부부 피살, 경찰 가족 1명 피살(자료집7권, 55-57쪽)
 - 4월 24-30일 : 제주읍 동쪽부터 서귀포까지 전화선 차단, 미군C-47기 1대 이륙 중 저격, 미군정청 내 PX 파괴, 폭도 4명 경찰에 사살, 우익인사 3명 피살, 선거관리위원 피살, 경찰 6개 마을 급습 8명 체포, 대동청년단 부인 2명 피살(자료집7권, 58-60쪽)
- 5월 1일에는 소위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 사실관계가 잘 정리된 나종삼의 저서 『4·3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자 153쪽을 인용한다. 참고로 오라리라는 마을은 4·3 사건 당시 좌익이 다수이면서도 우익도 함께 거주하는 제주도 내 마을이었다. 마을 내 우익성향의 주민들은 좌익의 괴롭힘에 시달려 이사 가려 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오라리에서는 4·3사건 이래 남로당자위대와 경찰로부터 번갈아 가며 죽임을 당하는 인명피해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제주읍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 마을의 우익 대동청년단(대청) 단장과 부단장 등 2명이 납치된 후 행방불

30) A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n War』, 2005, University Press of Kansas, 142쪽에는 “The Korean war began on April 3, 1948, on Cheju-do with widespread, orchestrated attacks by Communist-led partisans...”라고 되어 있다.

31)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공산당에 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

32)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67쪽.. 무장대 측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경찰 사망이 10명으로 되어 있음.

명되었고, 4월 30일에는 동서 간인 대청 단원의 부인 2명이 세간살이를 제주읍 내로 옮기기 위해 마차를 대동하고 마을에 들어왔다가 주민들에게 납치되어 산으로 끌려갔다. 마차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대가 마을 뒷산을 수색하면서 접근하자 두 여인 중 한 명이 포승을 풀고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되었고, 다른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³³⁾ 5월 1일 오전 9시경, 전날 남로당자위대로부터 살해된 대청단원 부인의 장례식이 있었다. 마을 부근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경찰 3, 4명과 서청·대청 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만을 태운 채 돌아갔고 우익청년단원들은 그대로 남았다. 그중에는 오라리 출신 대청 단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오라리 마을에 진입하면서 좌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5세대 12채의 집을 불태웠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날 무렵인 오후 1시경, 마을에서 1km가량 떨어진 민오름 주변에 있던 남로당 마을자위대 20명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다. 청년단이 급히 피했지만, 이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피살되었다. 오후 2시경, 서청·대청 단원들로부터 남로당 마을자위대 출현 소식을 접한 경찰기동대(경찰간부후보생 1개소대 등 100여명)가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오라리 마을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로당 마을자위대는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민들은 불붙은 집을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산 쪽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고무생 여인이 숨졌다.”³⁴⁾

- 5월 1-6일 : 3일 오후 남로당 인민유격대 100명 애월면 공격/경찰 대응, 4일 폭도 50명이 함덕리 공격 대청 2명 납치, 5일 새벽 남로당 인민유격대 화북리 습격 3명 피살, 5일 새벽 삼양리 대청 2명 피살, 6일 경찰 폭도 1명 사살(자료집7권, 62쪽)
- 5월 7-11일까지 제주도 선거폭력 사태(자료집7권, 63쪽)

	사망	부상	실종	방화	습격
경 찰	1명	21명	4명		
우익인사	14명	5명			
공산폭도	21명				
주 택				22채	
투 표 소					1곳

33) 林甲生(제주시 이도2동, 당시 납치됐다 탈출한 대청단원의 부인) 증언. (濟民日報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52~153쪽)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34) 좌익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오라리 방화사건이 좌익 무장세력에 의한 대청 단원 부인의 납치와 살해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미군정이 당시 항공 정찰을 하면서 오라리 화재 현장을 촬영한 것을 보고 미군정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익세력을 시켜 마을 방화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 5월10-12일 : 10일 대규모 폭도들 한림면 공격, 경찰/경비대 합동작전으로 격퇴, 무장폭도 25명 체포, 11일 폭도들 경찰관 2명 납치, 12일 폭도 30명 민간인 1명 살해, 12일 새벽 폭도 80명 세화지서 공격, 10-12일 공산 폭도들이 구좌면 송당리 지역 수십 차례 습격, 12일 경비대는 무장 공산폭도 25명을 체포/다른 곳에서 포로 193명 체포(자료집7권, 65쪽)
- 5월13-20일 : 13일 자정 폭도 300명 함덕리 공격 경찰 1명 피살/민간인 2명 피살, 13일 저지리에서 경찰1명/주민 6명 피살, 14일 저지리 지서 전소, 14일 폭도 200명 한림 공격 면장 부인 피살/1명 중상 주책 6채 소실, 14일 폭도 명월리/상명리 등 공격 방화, 15일 폭도들의 한림 습격 폭도 5명 사살/경찰 1명 피살, 경찰 제주읍/애월면 일대 폭도 1명 사살, 16일 오등리와 오라리에서 경비대 폭도 1명 사살, 17일 대동청년 단장 피살,

위에 요약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좌우익 간의 살육과 교전이 있었다. 누가 위의 상황을 단순한 소요사태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권력과 무장세력의 교전이 아니라 좌익 무장세력이 무차별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살육을 했다는 점이다. 또 공산 무장세력은 전화선 절단이나 전신주 파괴 등 제주도 내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선거를 철저히 폭력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VI. 박진경 대령 왜곡

1. 4·3 사건 학살의 주범

2021년 제주 KBS에서 4·3사건 특집으로「암살 1948」이라는 다큐멘터리를 4월 2일 저녁에 방송했다. 박진경 대령의 도민 학살 왜곡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6분30초/나레이터) 그의 강경 토벌작전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양민과 폭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도가 출현한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해 갔다. 무차별적 토벌은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다. 당시 수용소에 수감 되었던 한 중학생의 석방 증명서 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취조를 했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을까.³⁵⁾ (17분18초/김종민³⁶⁾) 정말 닥치는 데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35)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 명령을 했다.³⁷⁾

올해 3월 10일 제주도 좌익단체들은 제주도민이 세운 추모비에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을 씌우고 역사의 감옥이라 하며 박진경 대령을 4·3 사건의 학살자라고 명명했다. 또 제주의 소리에서는 '3월 12일 자 기사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학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제주 4·3 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이라는 표현을 썼다.³⁸⁾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박진경 대령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학살이란 단어를 박진경 대령의 공비토벌 작전에 사용한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이다. 학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가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상으로는 '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는 러시아가 부차 등 우크라이나의 도시에서 행한 민간을 학살을 들 수 있다. 또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 살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월 3일 새벽, 한라산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자 남로당의 유격대가 도내 24개 지서(경찰 파출소) 중 12개 지서를 습격 하고, 경찰 가족, 우익인사, 선거관리위원들을 무차별 살육과 테러를 자행하였다. 전술하였지만 1948년 4월 3일 하루에만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의해 총 20여 명이 살해된다.³⁹⁾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선국방경비대 투입이 결정되고 조선 경비대는 대유격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4·3 사건과 관련하여 좌익들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995년에 제민일보 4·3 취재반이 작성한 단행본, 『4·3은 말한다』, 제3권, 419쪽부터 428쪽에는 박진경 대령 재임 기간 작전 사상자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중 조선 경비대가 남로당 유격대를 사살한 전과는 작전 중 사살 25명뿐이다. 이 중 11명은 6월 3일 경비대와 경찰의 합동작전의 결과라 조선국방경비대가 정확히 몇 명을 사살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볼 때, 어떻게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에 대해서는 채명신 장군도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36) 전 제주 4·3 사건 중앙위원회 전문 위원.

37) <https://www.youtube.com/watch?v=hY8aXse5Fw8>

3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338>, 제주의 소리는 하나의 사례이고 경남도민일보 등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박진경 대령을 4·3 사건 학살의 주범으로 왜곡한 바 있다.

39) 제주4·3 위원회, 4·3 사건 자료집 12권, 237쪽-238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15쪽. 4·3 사건 당시 제주도 화북지서장이었던 문창송 경위가 1949년 6월 7일 당시 제주도 남로당 유격대장 이덕구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특공대 20명을 투입하여 이덕구를 사살하였다. 이때 이덕구의 전령이자 호위병이었던 양생돌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장대 자료를 압수했고, 이를 문창송 씨가 이 문건을 단행본으로 대중에 공개한 책이,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이다.

“한쪽에서는 박진경 대령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4·3 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이 입산했습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양민 보호작전은 인도적이면서 전략적 차원의 행동입니다.”⁴⁰⁾(중략). 그는 주민들을 선무 공작으로 입산 인민유격대로부터 분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격전에서 유격대와 주민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이는 모택동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유격대를 섬멸하려면 우선 주민을 유격대와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월남에서 작전할 때도 베트남과 주민을 분리하는데 작전의 주안을 두었습니다.”⁴¹⁾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3명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매우 당혹했었고 포로 관리에 대한 지침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11연대의 미 고문관 두르스 대위는 박진경 대령과 11연대의 작전을 확인 감독하고 있었다. 민간인 학살이 가능했을 리 없다. 특히 미군정의 직접적인 작전 통제하에 본격적인 대유격작전을 실시하면서 미군과 조선경비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민심을 동요하게 하는 제주도민 학살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 발발 당시 제주도에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누가 언제 누구를 학살했단 말인가?

박진경 대령의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육군참모 총장을 역임한 이세호(육사2기, 당시9연대 1대대 부대대장)장군은, “박진경 대령은 진짜 인격자이고 살아계셨다면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 하실분입니다. 성품이 독재형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⁴²⁾ 또 합참 본부장을 역임한 류근창(육사2기, 당시 제11연대 군수과장) 장군은, “박진경 대령은 훌륭한 분이셨다. 양민을 무조건 학살할 성품이 아니다. 모두한테 존경받는 인품의 소유자다.”라고 증언했다.⁴³⁾ 박진경 대령은 선배, 동료, 부하로부터 존경받는 참군인이었다.

박진경 대령과 조선국방경비대의 산중 주민들에 대한 체포는 정상적인 대유격작전(현재 군 교리상 후방지역 작전의 하나임)을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유격기지 내의 민간인을 체포한 후에는 합동심문조의 심문을 거쳐 대공 용의점을 확인했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으며, 인민유격 대와 주민을 분리하려 했다. 그리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주민들은 석방했다.

40) 정부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18쪽.

41) 채명신(2001.4.17. 4·3위원회 전문위원 나중삼 채록) 증언

42) 이세호(2001.7.15.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43) 유근창(2001.7.27.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2. 포로 관련 고문, 학살

(17분18초/김종민⁴⁴⁾) 정말 닥치는 데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연대장이 학살 명령을 했다. (나레이터) KBS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한지 한달 여 동안 군경 토벌대에 끌려간 사람은 약 6,000 여명에 달한다. 당시 무장대 수는 불과 500여 명이었다. 명령에 불복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총칼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이 무수했다.⁴⁵⁾

본고 8쪽 지휘 체계도는 제주도에서의 미군정 작전의 포로 취급에 대한 좌익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지휘체계도 상의 작전 요소별 임무는 위에서 언급한 브라운 대령의 지침에 잘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로 심문센터에 대한 것이다. 저들이 박진경 대령이 포로들에 대해 고문을 하고 이유 없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의 지휘체계를 이해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진경 대령의 11연대는 브라운 대령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내 남로당 인민유격대 진압 작전을 실시했고 진압 작전 간 적의 유격기지로부터 체포된 포로들은 모두 범죄수사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센터로 인계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언이 있어서 소개한다. 당시 소대장으로 이 작전에 참가한 한 장교(조연표 소위, 육사 4기)는 “우리는 작전 간에 50세까지의 남자를 모두 학교에 나와 있는 방첩대에 인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방첩대란 심문센터에 나와 있는 군의 심문관을 말한다.

문 : 진출 간의 전투라던가 또는 다른 일은?

답 : 당시 CIC(방첩대)⁴⁶⁾가 파견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작전 간에 50세까지의 남자를 모두 학교에 나와 있는 CIC에 인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전 간에 교전은 별로 없었고, 작전 후 백록담에 발을 씻고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⁴⁷⁾ (중략)

1948년 4월 20일경 제주도에 부임하는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딴 군정장관이 내린 지침에도 포로 보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5월20일 군경합동 대유격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브라운 대령의 작전지침에도 포로 보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 이렇게

44) 전 제주 4·3 사건 중앙위원회 전문 위원.

45) KBS제주, 2021년4월2일 방송, 『암살,1948』, 전술한 바 있으나 왜곡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 일부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함.

46) CIC, 당시 방첩대(현재 용어로는 범죄수사대)는 박진경 대령 소속 부대나 조직이 아닌 독립기구였다.

47) 조연표(육사4기, 당시 9연대 1대대 2중대 소대장, 대령 예편, 2001년 10월 15일, 나종삼 4·3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채록) 증언.

미군정에서 포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전술한 바 있지만 미군정 당국의 본격적인 제주도 개입 이전에 치안세력에 의해 포로에 대한 반인권적 사건 때문이었다.

제9연대는 박진경 대령 부임 전부터 임무 수행을 했던 미군정 당국의 고문관 드루스 대위가 있었다.⁴⁸⁾ 전술한 바 있지만, 경비대 작전은 11연대의 미고문관 드루스 대위에 의해 모든 작전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다. 따라서 포로에 대한 고문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박진경 대령은 경비대 4개 대대(15개 중대 3,800여명)⁴⁹⁾를 지휘하여 5월 30일에서 6월2일까지의 1차 작전과 6월14일부터 17일까지의 2차 작전을 수행하였다. 작전 결과, 경비대 작전의 정보가 누설되어 남로당 유격대 주력은 놓쳤으나 1차 작전 시 입산 주민 595명과 2차 작전시 포로 53명 등 650여 명을 합동심문센터에 인계하였다.⁵⁰⁾ 경찰이 포로심문센터에 인계한 주민 숫자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

6월 16일 자 미군 측 기록에 의하면 포로심문센터에는 1·2차 작전 간 3,000여 명이 인계되었는데 심문 결과 대부분 석방하고 4개 심문팀은 575명을 심문 중이었다.⁵¹⁾ 좌파 인사들은 암살범들의 법정 진술을 거론하면서 박진경 연대장이 6,000여 명을 체포하여 학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성시백이 운용했던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자 기사⁵²⁾를 인용한 것인데 그 기사에는 경비대와 경찰에 붙잡힌 폭도들이 6,000여 명이며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 서울에서 판검사들이 파견되어 재판했다고 되어 있다.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약 6,000명이라는 숫자는 4·3사건 이후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과 경비대에게 체포된 폭도들의 총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교묘하게 박진경 대령 재임 기간에 체포된 포로의 수를 부풀렸다.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했다. 부풀려진 포로의 숫자, 고문, 학살 명령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박진경 대령이 자행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4·3사건 이후 남로당 공산 유격대가 마을에 테러와 살인을 가하면서 우익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테러와 살육에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녀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1948년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경종씨의 사례를 보자.

나의 부친 김경종(당시 42세)은 오등리 리장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폭도들은 제헌회의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주민들을 한라산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부

48) 두르스 대위는 경비대에 대유격작전 명령이 내려진 직후인 4월 19일 무렵 제9연대에 부임한다. 이 시기는 박진경 대령 부임 전으로 김익렬 중령이 9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출처 : 김익렬 유고.

49)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83쪽; 『제주 4·3사건 자료집 12권』, 273쪽.

50) 주한미 육군사령부 일일 정보보고서, 1948.6.4 및 1948.6.15.

51) 주한미 육군사령부 민간인 고문관(Joseph E. Jacobs) 보고서, "제주도 소요사태" 1948.7.2.,

52) 제주4·3위원회, 제주 4·3사건 자료집 2권 133쪽.

친(김경종)은 오등리 리장 겸 선관위원장으로서 5·10 선거를 보이코트하려는 남로당측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5·10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친의 이러한 행동은 남로당세력인 공비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5·10 선거를 단선단정이라고 하였으나 1948년 2월 6일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 초안을 채택했으니 자기들(남로당)이 먼저 단독정부를 지지했다. 그들의 눈에는 리장 김경종은 인민의 적이고 반동이었다. 공비들이 합법적인 권력기관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도처에서 저질렀고, 부친 김경종을 비롯한 저의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했다. 5월 8일 아침 8시쯤 폭도 열댓명이 우리집을 덮쳤다. 저의 부친은 그날(5월 8일) 출타 중이어서 난을 피했고 저의 할머니(72세)와 어머니(42세),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어린 동생(2세)이 공비들의 죽창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 집은 불태워졌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12살)은 그날 죽창에 찔린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앓다가 21세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목포중앙 초등학교 교사로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난을 피하였다. 당시 폭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했으며, 공격대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았고, 폭도 중에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⁵³⁾

위 사례는 공산 무장세력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 무차별 살육을 한 사례로 1968년 북한의 무장 공비 침투 시 이승복이라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육한 사건을 연상시킨다. 제주도 내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대흔돈의 상황 속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산중으로 끌려가는 데 집에 혼자 남이 있을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산중 유격기지에서 생활하며 어린이를 빗개(정보원, 보조)로 활용했는데 평소 높은 봉우리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경찰이나 경비대 등 토벌대가 접근하면 깃발을 들어 이들의 접근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기지에서 발견되면 적 무장대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심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적 기지에서 발견된 어린이들이 포함된 모든 인원을 정보 획득을 위한 심문을 한 것과 어린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전투 현장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어린이를 무차별 살육한 것과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한 좌익 학생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살상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도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다. 육사 5기로 임관하여 부산의 제5연대에 배치되었다가 4·3사건 초기에 제주도에 간 김형룡(金炯龍) 소위는 여러 명의 좌익 학생들이 동조하지 않는 학생 1명을 테러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53) 高文昇, 『제주사람들의 설움』, 1991.9., 98~101쪽., 김병언(63세, 제주시 오등리) 증언

내가 제주도에 복무하고 있는 동안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 제주도에 차출된 병력을 재편성 겸 교육을 위해 제주농업중학교에 주둔한 일이 있다. 당시 나는 기숙사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이었다. 내가 자는 방 바로 앞에서 ‘사람 살리라’는 비명과 함께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황급히 나가보니 어느 학생 한 사람이 목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목 부위를 칼에 찔려 있었다. 나는 즉시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있던 가제와 붕대로 싸매어 응급조치하고 사병 한 사람을 달려 제주 도립병원으로 이송시켰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학생은 한림이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다. 따라서 좌익계 학생들은 이 학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혔고, 좌익계 학생들이 그를 죽이려고 미행하자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숙소를 옮겨가면서 생활했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난 날은 학교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기숙사에서 잠자다가 변을 당했다. 범인을 잡지도 못하였다. 이 학생은 응급조치한 것이 도움이 되었던지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제주도가 얼마나 살벌했고 어지러웠는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⁵⁴⁾

좌익계 학생들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까지 들어와서 장교가 잠자고 있는 방 앞에서 학생회 간부에게 테러 행위를 가한 것은 대담한 행동이며, 이 사건은 제주 사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좌익계가 우익계보다 훨씬 우세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3. 9연대 41명 집단탈영

(18분 40초)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 작전이 계속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군인들이 탈영한 것도 그즈음의 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제주 출신이었다.⁵⁵⁾

제주 KBS의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많은 다수의 좌익 언론은 9연대 군인들의 집단탈영을 박진경 대령의 가혹한 토벌 작전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1948년 5월 6일, 박진경 중령은 제9연대(실병력은 모슬포 주둔 1개대대)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박진경 중령은 제주도로 이동한 제11연대장(3개대대)에 5월 15일부로 취임하게 되고 같은 날로 제9연대 1대대를 배속받음으로써 4개 대대를 지휘하게 된다.⁵⁶⁾ 박진경 대령은 서둘러 부대정비를 하게 되는 데 우선 사상이 의심스러운 1대대장 오일균 소령을 사령부로 보냈다. 이어서 비어 있는 11연대의 2개 대대와 9연대 1개 대대 등 3개 대대장(대위 서종철, 대위 김용주, 대위 고근흥)을 5월 24일 총원받았고 연대 참모 요원 3명(대위 최갑중, 중령 김종평,

54) 金炯龍, ‘高校學生들 끼리도 刺殺企圖’(육사5기생회, 『陸士 第5期生』, 1990. 6, 123쪽.

55)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56)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5.15.

소령 백선진)도 보강한 후인 5월30일부터 4개 대대로 본격적인 대유격작전을 전개했다.

9연대 군인들이 집단탈영했던 5월 20일에까지는 박진경 대령이 이렇다 한 작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박진경 대령의 1차, 2차 작전 이전까지의 상황은 인민유격대에 의한 공격과 대응, 그리고 저들의 역대응이 주둔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1연대는 박진경 대령의 지휘를 5월 15일부터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제주도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또 지리적으로도 박진경 대령은 연대본부가 있었던 제주읍과 모슬포의 9연대는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었다. 당시 남로당 유격대의 도로 차단과 전화선 절단으로 인해 당시 탈영 사건을 연대본부에 보고했던 대대장 직무대리인 1중대장 이세호 중위는 모슬포에서 배로 제주읍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탈영한 9연대 일부 군인들은 과연 박진경 대령의 어떤 작전을 어떻게 보고 가혹한 토벌 작전이라고 여기고 탈영했던 말인가?

1948년 5월 20일 탈영한 군인들은 조선경비대 제9연대 내에 침투해 있던 좌익분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들이 탈영할 때까지 실시되지도 않았던 박진경 대령의 대유격작전에 반발하기 위해 탈영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 책임자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탈영을 한 것이다. 모슬포에 주둔했던 9연대 내에는 장교들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남로당 좌익분자들이 침투해 있었다. 남로당 인민유격대로부터 노획한 노획문서⁵⁷⁾에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세포조직을 조선경비대에 가담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다.⁵⁸⁾

9연대의 좌익 프락치 실태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남로당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내에 수록되어 있어 원문을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1948년 3월 중 남로당 유격대가 4·3 사건 무장 폭동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다.⁵⁹⁾ 4·3 사건 이전, 제주도 조선경비대는 9연대가 전부였다.

4·3 투쟁의 전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찰청(藍察廳)과 구서(1區署) 습격에 국경(國警)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나머지 각 지서는 유격대(遊擊隊)에서 담당하기로 양면 작전을 세워 즉시 좌기⁶⁰⁾ 프락치에게 연락을 부치고 동원 가능 수를 문의한 바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으며 200명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下士官) 합하여 18명이니 이것만 숙청하면 문제없다는 보고가 있었음.⁶¹⁾

9연대 내의 좌익분자들에 대한 지도는 일제하에 제주도에서 일본군 하사관으로 복무했고,

57)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5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75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268쪽., “본도 주둔 제9연대가 신설되어 1차 모병이 있으므로 대정 출신 동무 4명(고승옥(高升玉), 문덕오(文德五), 정두만(鄭斗萬), 류경대(柳京大) 등 프락치 4명을 입대시켰음.”

59) 4·3 사건 당시 조선국방경비대에 실탄이 없었고 경비대 내의 장교 프락치에 대한 동원은 중앙당의 지시라는 이유로 실제 4·3 사건 당시에는 조선경비대를 동원하지 않았다.

60) 좌기 라는 표현은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원문이 국한문 혼용의 종서체였기 때문이다.

61)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76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권』 268-267쪽.

좌익들이 많았던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 출신인 문상길 중위가 맡았다. 9연대 내에는 통신·정보참모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남로당 좌익분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제주 4·3 사건이 터진 후 급파된 증원 부대장 오일균 소령조차도 남로당 당원이었다.⁶²⁾

가. 남로당 제주도당 문건으로 확인된 탈영 동기의 진실

문상길은 5연대에서 1개 대대가 증파되는 4월 20일 경 김달삼과 만나 9연대의 탈영병 추진을 일차적으로 합의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남로당 노획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구(조직지도원)를 파견하여 문소위⁶³⁾와 정상적인 정보교환을 하여 오든 바 4월 중순에 이르러 돌연히 부산 제5연대 1개 대대가 내도하여 산부대(남로당 인민유격대)를 포위 공격하게 되었으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연락이 있어 군책(군책임자 김달삼)이 직접 파견되어 문제를 수습하기로 되었음. 군책⁶⁴⁾과 문소위가 만난 결과 국경의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도당의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나 행동의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더욱이 최후단계에는 총결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였음.⁶⁵⁾

이 글에서 문상길 소위가 남로당 세력과 내통하면서 조선경비대의 병력 증원상황 등을 보고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문상길 중위가 남로당의 프락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 문소위와 정상적인 정보교환을 했다는 면에서 당시 문상길 소위는 조선경비대 내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이라는 일차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순 탈출이 아닌 인민군 원조부대로서의 탈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또 2차 합의는 5월 10일의 김달삼-오일균 간 남로당 대책 회의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후술하겠지만 이 회의에서 박진경 대령 암살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 최대의 힘을 다하여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그리고 가능한 한 도내에 있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38쪽.

63) 육군본부에서 발행된 『임관순대장』에는 1948년 3월 15일 중위로 진급하였으나 남로당 문서에는 소위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육사 3기 동기생이었던 조선경비대의 남로당 프락치 이윤락 중위도 문상길 중위와 같은 날 진급했으나 역시 남로당 문건에는 소위로 기록되어 있다.

64) 군 책임자의 줄임말로 김달삼을 뜻함.

65) 『4·3 사건 자료집 12권』, 269-270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7-78쪽.

어서의 탈출병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⁶⁶⁾

이 대목은 조선경비대 내의 남로당 프락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한 문장인데, 저들은 이 문서의 지침대로 5월 20일 집단탈영 때 무기와 실탄을 소지했었다.

또 남로당 인민유격대로부터 노획한 문서인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⁶⁷⁾에 의하면 1948년 5월 20일 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5월 20일 문 소위 지시에 의하여 9연대 병졸 최상사 이하 43명이 각각 99식 총 1정식을 가지고 탄환 14,000발을 트럭에 실어 탈출, 도중 대정지서를 습격, 개(경찰) 4명, 급사 1명을 즉사시키고, 지서장에게 부상시킨 후 서귀포 경유 상산(上山)하려고 했으나 그 연락이 안 되어 결국 22명은 피검, 탄환 다수 분실 혹은 압수당하고 겨우 4, 5일 후에야 나머지 21명과 아 부대와 연락되었음. (이 때에는 각각 99식 총 1정식과 99식 탄환 100발식만이 남아 있었음). 이 때 연락이 안 된 원인은 문 소위가 우리에게 보낸 연락 방법과 탈출병들이 연락한 연락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⁶⁸⁾

노획문서에 문 소위 지시로 탈영이 있었던 5월 20일과 실제 탈영이 발생한 날짜가 일치한다. 또 탈영 당일 문상길 중위가 9연대 1대대 당직사령이었고 탈영은 9연대 1대대 최모상사 인솔하에 이루어졌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최모상사 등 41명이 실탄 5,600발을 휴대하고 차량으로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다.⁶⁹⁾ 탈영 당일 당직사령인 문상길 중위는 병사들의 탈영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녘에 비상을 걸었으나 인원 점검만 했을 뿐 적극적인 탈영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일부 병력을 피습당한 개정 지서로 보냈으나 곧 돌아오고 말았다.⁷⁰⁾ 문 중위는 자신의 지시로 병사들이 탈영했으니 탈영 대책에 적극적일 리가 없었다.⁷¹⁾ 이들의 탈영은 가혹한 토벌작전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간상으로 탈영은 박진경 대령의 작전 개시 이전이었으며, 남로당 노획 문건, 40명 이상이 차량, 실탄, 무기 등을 가지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합류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보았을 때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탈영이었고 이는 조선경비대의 활동을 사보타주하라는 남로당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다.

66) 『4·3 사건 자료집 12권』, 271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80쪽.

67)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6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81쪽., 『제주4·3 사건자료집 12권』, 271쪽.

6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5.24.(No. 842)

70) 나종삼, 위의 책, 189쪽.

71) 나종삼, 위의 책, 189쪽.

4. 박진경 대령 암살 동기

(25분 22초)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임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상길 중위는 동족상잔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상길 중위, “박 대령 부임 후의 대내 공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 부대에 무조건 공격 명령이 내려졌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44분 45초) 김종민, 문상길의 행동에는 적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상관을 암살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문상길을 단순하게 상관을 암살한 암살범이 아니라 동족, 특히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⁷²⁾

박진경 대령의 2차 대유격작전이 종료된 6월 17일 밤에 임관호 2대 제주도지사가 제주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제주읍에서 연대장 진급 축하연을 열었다. 술을 잘 못 마셨던 박진경 대령은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침실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침실이라야 집무실 한쪽에 마련한 야전침대였다. 자정이 넘은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 주둔 9연대 1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연대장을 M-1 소총으로 사살하였다.

박 연대장의 장례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남산동에 있는 경비대 총사령부에서 통위부장(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와 유가족,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등 각계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部隊葬, 육군장 제1호)으로 치러졌다.⁷³⁾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은 육군장(陸軍葬) 제1호로 기록된 고급 장교의 첫 희생이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언론에서도 재판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암살사건 즉시 군·경은 물론 미군 CIC(방첩대), CID(범죄수사대) 요원들이 투입돼 암살범을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⁷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사건 7일 만에 모 하사관이 보낸 한 장의 투서로 실마리가 풀렸다. 투서는 ‘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연대정보과 선임하사 최상사를 잡아보면 암살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⁷⁵⁾ 문상길 중위가 확신에 찬 확신범이었다면 만천하에 자신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다고 알리고 자수해야 했는데

72) KBS제주 4·3사건 특집, 「암살 1948」, 2021.4.2. 저녁에 방송, 책임 PD 김정중, 프로듀서 김은정.

73) 『京郷新聞』, 1948년 6월 23일. 후일, 박대령의 부대장은 육군장 제1호로 기록된다.

74) 6th Division,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73, June 18, 1948.

7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41쪽.

왜 그러지 못했을까?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프락치로 조선국방경비대 9연대 책임자로 암약했었고 이미 5월 20일의 조선 국방경비대 9연대 장병 41명의 탈영을 했기 때문이었다. 문상길은 남로당 지시에 따라 남로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기 때문에 자신의 박진경 대령 암살 사실을 은닉하고 싶었을 것이 확실하다.

문상길 중위를 시작으로 암살사건 연루자들이 속속 체포됐다. 그들은 문상길(文相吉·중위), 손선호(孫善鎬·하사), 배경용(裴敬用·하사), 양회천(梁會千·이등상사), 신상우(申尙雨·하사), 강승규(姜承珪·하사), 황주복(黃柱福·하사), 김正道(金正道·하사), 이정우 등 모두 9명이었다.⁷⁶⁾ 암살사건 관련자 중 이정우는 M-1 총 1정을 소지한 채 입산해 인민유격대에 합류하여 체포를 피했다.⁷⁷⁾ 직접 총을 쏘아 연대장을 암살한 사람은 부산 5연대 출신 위생병 손선호 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암살범들을 고등군법회의에 넘기기 위해 7월 12일 서울로 압송했다.⁷⁸⁾

고등군법회의 재판의 초점은 연대장 암살의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지형(李智衡) 중령은 문상길 중위가 인민유격대 책임자인 김달삼과의 두 차례의 회담을 하고 그의 사주를 받아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손선호 하사가 M-1 총으로 박 대령을 암살했다는 내용의 기소문을 낭독했다.⁷⁹⁾

암살의 주범인 문상길 중위는 법정 진술에서 동족상잔을 피해야 한다는 김익렬 전 연대장의 방침에 찬동했기 때문에 김익렬 중령과의 회견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김달삼을 만났고, 두 번째는 박 대령 부임 후로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⁸⁰⁾ 그러나 문상길은 김달삼이 ‘박 연대장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김달삼 지령설’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 됐다.

또 문상길이 김달삼을 두 번 만났다는 말은 완전한 허위 증언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 항공기지 오무라(太村)부대가 건립한 장소(대정읍 상모리 3376-1)⁸¹⁾를 해방 후 미군 정청이 접수하여 반은 대정초급중학교에서 반은 조선경비대 9연대가 사용하고 있었다. 김달삼⁸²⁾(본명 이승진)은 1946년 10월 20일부로 공민과 담당 촉탁 교사로 월급 300환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이 학교에 부임하였다. 문상길도 1947년 4월 19일 조선경비사관학교를 3기로 졸업하고 동년 11월에 제주 조선경비대 제9연대에 배치되었다. 문상길은 이승진(가명 김달삼)과 자주 어울렸다. 이승진(김달삼)은 김익렬과 함께 일본군 복지산업비사관학교

76) 『國際新聞』, 1948년 8월 10일 ;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 『漢城日報』, 1948년 8월 15일.

77)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헌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82쪽.

78) 『自由新聞』, 1948년 7월 13일.

79) 새한일보, 1948년 10 상순(2권 16호); 신상준, 『제주 4·3 사건』하권 497쪽.

80)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4일.

81) 제주연구원. 제주육군제1훈련소구술조사(부대시설위치를 중심으로).(제주:일신옵셋인쇄사, 2019), p.38.

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사건교육계피해조사보고서. (제주: 평화사. 2008), p.197.

출신이며 군사 문제에 해박했고 문상길 중위 역시 일본군 부사관 출신이었으며 둘은 같은 연배의 청년으로 사상적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퇴근 후 만나 시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4·3사건이 일어난 후 문상길이 말을 타고 나타나 김달삼 집에 며칠 머무르다 가기도 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⁸³⁾

자신만만한 확신범이 무엇이 두려워 김달삼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던 말인가? 문상길은 자신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 내통하고 경비대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남로당 지시로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싶었다.

가. 남로당 인민유격대 노획문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

제9연대 프락치 책임자인 문상길은 법정진술 시에 4월 20일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파견되는 데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김달삼과 회동한 사실과 5월 10일 김달삼·김양근·오일균·이윤락 4자회담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일절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3 사건 자료집 12권』⁸⁴⁾과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⁸⁵⁾

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가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국방경비대)의 산(山)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전후 2회에 걸쳐 군책(軍責)⁸⁶⁾과 김연대장과 면담하여 금반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인민과 국경(국방경비대)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 일치를 보아 김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제1차 회담에는 5연대 오일균씨도 참가, 열성적으로 사건 수습에 노력하였음)⁸⁷⁾

이 대목에서는 남로당 무장세력이 소위 김익렬의 ‘평화회담’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경비대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익렬 9연대장이 하고자 했던 소위 ‘평화회담’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억제 전술에 교묘히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83)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권, (제주: 도서출판 한울), p. 200.

84) 4·3 사건 자료집은 11권까지만 대중에 공개되고 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있다. 그 경위는 맺음말에서 후술한다.

85) 『4·3 사건 자료집 12권』, 237쪽-238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14쪽, 15쪽.

86) 남로당 제주도당 군 책임자를 줄여서 쓴 단어로 김달삼을 뜻한다.

87) 『4·3 사건 자료집 12권』, 270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8쪽.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브라운 대령의 1948년 7월 1일 보고서에도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에서 남로당 공산주의자 들의 폭동으로 인해 5월 10일 선거가 무산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두 명의 11연대장들이 공산 선동가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단호한 작전이 필요한 곳에 지연전략을 구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⁸⁸⁾

5월 10일 제주읍에서 도당 대표로서 군책과 조책⁸⁹⁾ 2명과 국경측에서 오일균 대대장 및 부관, 9연대 정보관 이소위 등 3명과 계 5명이 회담하여 ㉠ 국경 프락치에 대한 지도 문제 ㉡ 제주도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이 취할 바 태도 ㉢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등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음. (중략) ㉣ 제주도 치안에 대하여 미군정과 통위부⁹⁰⁾에서는 전면적 포위 토벌 작전을 지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면 결국 제주도 투쟁은 실패에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국경에 대해서는 포위 토벌 작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보타주 전술을 쓰며 국경 호응 투쟁에 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다. 특히 대내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 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⁹¹⁾

이 대목은 남로당에서 제주도의 국방경비와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와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 국경 프락치에 대한 지도 문제’라는 항목은 국방경비대 내에 남로당 프락치가 실존했음을 명확히 입증해 준다. ‘㉡ 제주도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이 취할 바 태도’라는 항과 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방경비대를 동원한 전면적 토벌작전은 제주도 남로당의 투쟁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국방경비대의 토벌 작전 참여를 저지하고 지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보타주 전술을 쓰라고 했다는 점이다.

또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국경 내의 호응 투쟁⁹²⁾에 관하여 중앙에 건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보타주 전술을 도당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국방경비대 내의 프락치를 동원한 투쟁은 중앙당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 끝에 나온 반동의 거두 박진경 대령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문상길 중위가 당시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지시에 따라 박진경 대령을 살해하였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나. 기타 정황과 재판 결과

문상길의 수상한 행적은 더욱더 그가 계획적인 암살을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차

88) 김영중, 『제주 4·3 사건 문과 답』, 2021., 도서출판제주문화, 2021.3판, 356쪽., 제주 4·3 사건 자료집 9권에도 수록되어 있음. 박진경 대령도 미군정의 지침에 따라 귀순공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89) 조직 책임자

90) 당시 국방부의 명칭

91) 『4·3 사건 자료집 12권』, 270-271쪽,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시: 대림인쇄사, 1995, 79-80쪽.

92) 호응 투쟁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함께 무장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뜻한다.

작전을 끝낸 9연대 1대대는 제주에서 정비 겸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세호는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제주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증언했다.⁹³⁾ 작전이 끝나 는 날 연대장 진급 축하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상길은 입원이라는 거짓 구실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2차 작전에서 열외로 하여 병원에 있으면서 연대장 암살계획을 준비했다.

한 미군보고서는 “당의 전복활동을 전담하는 이 조직(제주읍 특별위원회)의 무모하고 냉혹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놀랄만한 한 가지 사례는 경비대 제11연대장을 살해한 일일 것이다. 연대장의 움직임은 경비대에 침투한 세포들이 확실하게 보고했다”⁹⁴⁾고 기록하였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복활동을 전담하는 지하조직인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문상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연대장 암살에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피고인들도 한결같이 김익렬 전 연대장과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을 비교하면서 무모한 토벌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암살의 동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전략).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⁹⁵⁾고 말하고, 경찰이 저지른 일과 전임연대장 시절인 5월 1일에 발생한 오라리 사건 등이 박대령 부임 후의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상부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박진경 연대장을 비난하면서 직속상관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암살범들의 사상문제는 도외시한 채 암살범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했다. 관선변호인 김흥수(金興洙) 소령은 이들의 배후를 확실히 알지 못 한 채 “문 중위 이하 각인은 산사람의 지령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무슨 사상적 배경도 없고 다만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범행이었으니 특별히 고려해 달라”고 변호했다. 이는 당시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내부사정이 노출되지, 았았기 때문이다. 김양(金養) 민선변호인도 4·3사건의 원인이 악질경관과 탐관오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관 이지형 중령은 “그릇된 민족 지상의 이념에서 군대의 생명인 규율을 문란케 한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⁹⁶⁾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루 전인 8월 14일 열렸다. 재판부는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하사관 등 4명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또 양회천에게는 무기징역을, 강승규에게는 5년 징역을 각각 선고했으며 황주복·김정도 하사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⁹⁷⁾

93) 이세호 증언, 2002년 10월 4일, 동부이촌동 자택, 4·3진상조사 전문위원(나종삼, 김종민, 현석이) 채록

94)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 Do from Colonel Brown, 1 July 1948.[첨부문서 : 제주도 남로당원을 조사해 얻은 제1차 보고서(1948. 6. 20)]

95) 『漢城日報』, 1948년 8월 14일.

96) 鄭東熊, 「동란 제주의 새 비극-박대령살해범 재판기」, 『새한민보』, 1948년 10월 상순.

97) 『京鄉新聞』, 1948년 8월 15일.

재판장인 통위부 감찰총감 이응준 대령에 의해 내려진 이 판결은 유동열 통위부장을 거쳐 된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⁹⁸⁾ 그런데 변호인의 감형 진정서가 제출되고, 각계에서 감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살형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다. 그 덕분인지 신상우·배경용에 대한 총살형은 집행 직전 특사에 의해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⁹⁹⁾ 그러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결국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산기슭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다. 암살범 문상길 손선호의 행적

박진경 대령 암살 주범인 문상길 중위는 경북 안동 출신이며 어릴 적에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 후 안동으로 돌아왔다. 일본군 부사관 출신으로 좌익 단체인 국군준비대에 가담하고 조선 민주 애국청년 동맹에도 가입한 좌익정년이었다.¹⁰⁰⁾ 그는 국군준비대가 해산되자 대구의 제6연대에 1기생으로 입대했고, 육사 3기로 임관하여 제주도 제9연대에 배치되어서는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좌익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제9연대에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 명령이 하달되자 토벌을 공공연히 반대하였으며, 경비대 1개대대(대대장 오일균 소령)가 증파되자 대책 수립을 위하여 4월 20일경에 김달삼과 회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연대장 이치업 중령과 후임연대장 최경록 중령을 암살하려 했고, 소대장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려 했으며, 선거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어느 날 전임연대장 이치업 중령이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는데, 같이 식사했던 미 고문관(맨스필드 중령, 미군은 장교가 부족하여 제주도 군정관이 9연대 고문관을 겸무)이 병원으로 싣고 가서 응급치료하였다. 연대장은 4일이 지나서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연대장의 병명이 급성장질부사로 알려졌으나 확실치는 않다. 그런데 박 대령 암살로 열린 군법회의 진술에서 문상길은 “억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 이치업 중령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영웅훈장을 탔을 텐데, 그걸 못해서 억울합니다.”라고 했다.¹⁰¹⁾ 이는 당시 본부중대장이던 문상길이 연대장을 독살하려다 실패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는 신임연대장 최경록 중령도 2번이나 암살하려 했으나 개(犬)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¹⁰²⁾

또한 문 중위는 9연대 1대대장 직무대리를 했던 이세호 중위를 암살하려 했다고 한다. 문 중위는 소위 시절 이세호 중대장 밑에서 소대장을 했으며 숙소를 중대장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집단탈영 사건이 터졌을 때 대대장이

98)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99) 『京鄉新聞』, 1948년 9월 25일.

100)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2)」(『청년생활』, 1950. 1, 32쪽)

101) 李致業(82세,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9연대장 역임, 2001. 10. 26 채록) 증언

102) 國防部, 『韓國戰爭史』제1권, 441쪽

공석이므로 이세호는 대대 선임 장교여서 제1중대장 겸 대대장 직무대리였고 문상길은 제3 중대장으로서 그날 대대 당직사관이였다. 이세호가 당직을 했던 문 중위를 책임 추궁했다라면 탈영책임자를 금방 알아냈을 터였다. 문상길은 이때 이세호를 암살하려 했으나 책임추궁을 심하게 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는 이세호가 8월에 조선국방경비대 본부로 전출한 뒤 연대장 암살사건으로 서울의 영창에 있던 문상길을 면회할 때 문상길이 고백한 내용이다.¹⁰³⁾

문상길 중대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바 있는 소대장 김준교 소위는 “우리가 99식 총과 일본도를 갖고 산에 숨어있는 수상한 자들을 잡아 오면 문상길 중대장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대장을 기합을 주고는 그들을 모두 풀어주곤 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고하냐?’고 항의하면 ‘까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문상길이는 공비와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¹⁰⁴⁾

또한 소대장 채명신 소위는 여러 차례나 문상길 중대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언덕 아래의 물웅덩이에서 목욕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부하 소대원들이 엄호사격을 한 덕으로 살았다”라고 하였다.¹⁰⁵⁾ 그리고 한번은 밤에 3/4톤 차량으로 병사 2명을 대동하고 밤에 서림 저수지에 배치된 2개 분대의 근무상태 점검을 위한 순찰을 하다가 인민유격대의 매복에 걸려 죽을 뻔하였다. 적은 채 소위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말을 걸자 “채명신 소위! 포위되었으니 저항 말고 손 들고 나오라” “우린 제주도 인민항쟁군이다. 빨리 항복하라” “채 소위, 고집부리지 마라. 너희 부대 속에도 우리 편이 많다” 는 등의 말을 들었다. 채명신은 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연대장 암살범으로 체포된 후에야 그날 밤의 일들이 이해되었다고 하였다.¹⁰⁶⁾ 즉 인민유격대가 채 소위가 순찰하는 코스와 시간은 물론 계급과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고 기습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저들이 중대장 문상길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채 소위는 미인계에 걸릴 뻔한 경험도 있었다. 어느날 문상길 중대장은 채명신 소위에게 특별외박을 강요하면서 공급계(보급계) 김 중사에게 채 소위를 수행토록 지시하였다. 채 소위는 모슬포에서 김 중사의 친척 동생뻘이 된다는 여학생을 소개받았고, 자연스럽게 방안으로 들어가 술상까지 받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중사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으며, 채 소위는 술과 쌀밥으로 저녁까지 대접을 받고, 자고 가라는 유혹까지 받았다. 그러나 채소위는 그녀의 입에서 공산 남로당에서 쓰는 ‘인민항쟁’ ‘경찰 때문에 제주도민이 일어섰다’는 말이 튀어나오자 정신이 펴뜩 들었다. 그는 순찰을 인계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대로 돌아왔다. 채 소위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미인계였다’라고 하면서 중대장이 외박을 강요한

103) 李世鎬(79세,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대장 직무대리, 2001. 3. 12. 및 2002. 10. 4 채록) 증언

104) 金俊敎(78세,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당시 9연대 소대장, 2001. 2. 13 채록) 증언

105)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3. 57~59쪽

106) 蔡命新, 위의 책, 59~63쪽

의미를 그 뒤에서야 이해하였다고 하였다.¹⁰⁷⁾

또한 문상길은 투표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5·10 선거 당일, 경비대는 경찰과 함께 투표장을 경비하게 되었는데, 문 중위는 부하들에게 “투표장을 경비할 것이 아니라 투표장을 파괴하라”라고 명령함으로써 문 중위의 부하들이 배치된 투표장에서는 경찰과 경비대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¹⁰⁸⁾ 문상길 중위는 기혼자였으며 그의 족보에는 부인 이름이 있고 부인의 묘가 만주에 있다고 되어 있다.

박진경 대령을 M-1 총으로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서 기혼자였다. 그는 조선 민주 애국청년 동맹에 가담하였고 대구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대구의 제6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1948년 3월에 부산 제5연대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가 4월 20일에 제5연대 1개 대대(오일균 대대)가 제주도 출동 시 제주도에 왔으며, 제주도에서는 선거 방해와 급식 관련 태업 등 나름대로 부대 내에서 좌익활동을 하였다. 그는 문상길 중위와 사상이 맞아 호흡이 맞아 사상적으로 문 중위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다.

VI. 맺음말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은 물론 4·3 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한 왜곡도 상당하다. 4·3 사건에서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에 반대한 것이 통일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로 통일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4·3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1948년 3월에 경찰에 의해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남로당 핵심 간부들은 1948년 2월 22일 신촌 회의에서 4·3 무장 폭동을 실행하기로 했다.

전향한 남로당원의 제보를 받은 제주 경찰은 1948년 1월 22일에 남로당 회의장을 급습하는 등 2회에 걸쳐 220여 명을 연행하였는데 회의장에서 입수한 문건에는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 폭동을 시작하고, 경찰 간부와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며,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 하라”는 폭동 지령문이 있었다.¹⁰⁹⁾ 이와 같은 지령문은 2월 12일에도 압수되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체포를 면한 간부급 19명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몇 차례 회의하다가 22일의 신촌 회의에서 3일간의 강온파간 격론 끝에 투표를 거쳐 경찰에 대한 무장투쟁을 결정하게 되었다.¹¹⁰⁾

107)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63~69쪽.

108)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1)』(청년생활, 1949. 12), 34쪽.

109) 주한 미육군 971 방첩대 격주간 보고서, 1948년 2월 1일~2월 15일.

110) 이삼룡(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양조훈, 김종민 채록) 증언. 이삼룡의 증언으로 ‘신촌’ 회의의 실체가 알려졌다. 그의 증언에는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나니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다는 내용도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남로당 제주도 당과 인민유격대에서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박진경 대령의 제주도 근무 기간 43일이 포함된 시기이다. 이 문서는 내용의 범위와 상세함 등을 보아 제주도 남로당 인민유격대장이었고 군책이었던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달삼은 1948년 8월 21일에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회의와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에게 남로당 제주도당의 투쟁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소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1차 보고서이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경 대령은 남로당으로서는 반동의 거두였으며 숙청의 대상이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도착한 지 4일 후인 5월 10일 숙청이 결정된다. 9연대 장병의 탈영은 두 번에 걸쳐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이다.¹¹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문상길이 등장하고 정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문상길이 남로당의 프락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보고서 작성 때 제주도 출신이었던 발간책임자는『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내용을 4·3 사건 자료집에서 빼려 했다. 왜 저들이 이 보고서를 빼려 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간다. 결국 이보고서는 4·3 사건 자료집 12권에 수록되기는 하였지만 12권은 4·3 사건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들과 관계관들에게만 보고서 작성용으로 약 30권을 제공한 게 전부였다. 4·3 사건 자료집 12권은 발간되지 못했다. 정부보고서 작성 시 전문위원으로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나종삼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자료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4·3 사건 자료집에 수록되게 된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다.¹¹²⁾ 그의 증언을 첨부한다.

작고하신 현길언 교수는 그의 저서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에서 4·3 사건을 보는 시각을 “폭도들의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사례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반란의 목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반국가적인 반란이라 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반인권적 사례 또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4·3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방향과 시각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일부 반인권적인 공권력을 일반화하여 공권력 전체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폭력행사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 정치 권력과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역사 왜곡이다. 이러한 왜곡은 반목과 대립의 악순환을 지속해서 일으키고 일반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군인과 경찰을

111) 5연대 1개 대대의 제주도 추가 배치에 따른 대책 회의가 열렸던 4월 20일에 1차 합의가 있었는데 이 시기는 박진경 대령이 부임하기 이전이었다.

112) 나종삼 증언(종로 소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무실, 2022년 7월 10일, 17:00-17:20, 박철균 기록), 4·3 사건 자료집 작성책임자가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자료집 수록에 반대하여 나종삼 위원과 한차례 논쟁을 벌인 후, 지원단장을 설득하고 동 내용을 4·3 사건 자료집 12권에 수록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세분 내용 첨부 참조.

왜곡해서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 갈등과 대립·반목의 복잡한 실타래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사실관계 정립과 그에 대한 인정에 있다. 4·3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립의 출발점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붙임 : 나종삼 증언(『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4·3 자료집 12권에 수록된 경위)

장소 : 종로 소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무실

시간 : 2022년 7월 10일, 17:00-1720

기록 : 박철균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948년 3월 15일부터 1948년 7월 24일까지의 남로당 제주도당과 무장대에서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948년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가해서 김달삼이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당시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하려고 월북해 있었음)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임을 알 수 있어요.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김달삼-김익렬 회담 시 김익렬의 반응까지 기록되어 있어 그 회담에 직접 회담한 사람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4·3 위원회에서 자료집을 작성했는데 자료 편집 시 내가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니 이 자료를 자료집에 넣자”고 주장하자 자료집 발간 책임을 맡았던 김종민이 이를 반대했어요. 이유인즉 “그 자료는 이미 책으로 발간되었으므로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 자료집 발간 목적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빼면 자료집 발간 목적이 훼손된다”고 하며 언쟁을 벌였고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서류를 김종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종민은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자료집에서 빼려 했고 나는 그 자료를 넣으려고 복사한 자료를 주면서 그 자료를 넣으려고 했었지.

나는 화를 식히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경복궁 경내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출신 김한욱 지원단장이 찾는다는 연락이 휴대폰으로 왔어. 옆방에서 큰소리가 났으니 단장은 왜 싸우는지 알고 싶었겠지.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한 부 복사해서 지원단장실로 들어갔지. 그리고 지원단장에게 이 자료가 남로당의 내부 문건으로 4·3 사건 진상 조사에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자료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장의 지시로 남로당 무장대 자료가 자료집 12권에 수록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문승 『제주 사람들의 설움』, 1991.
- 고재우, 『濟州4·3暴動의 眞相은 이렇다』, 1998. 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2002.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
-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鬭爭史』, 文友社, 1963.
- 金南天,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기(1)』, 청년생활, 1949.
-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 제주문화, 2021, 3판.
- 金炯龍, 『陸士 第5期生』, 1990.
- 나종삼, 『제주 4·3 사건의 진상』, 2013년, 서울: 아성사.
-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대림인쇄사, 1995).
-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3.
-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1집" 1948.5.15.
- 육군본부, 『임관순대장』
- 육군본부, 『후방지역작전』, 야전교범 운용-3-3(2018.1.1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이운방, 『4·3사건의 진상』(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자료집 I, 1989. 4.).
- 이선교, 『제주4·3 사건의 진상』, 2008년, 서울: 도서출판현대사포럼.
- 鄭東熊, 「동란 제주의 새 비극-박대령살해범 재판기」.
- 濟民日報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권(1994. 3); ③권(1995. 3), 전예원.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 권(1989. 4); II 권(1989. 8), 한울.
-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12.
-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②권, ⑤권, ⑥권, ⑦권, ⑫권.
- 蔡命新,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태학사, 2016.

증언

- 金俊敎(2001. 2.13. 채록) 증언.
- 나종삼(2022. 7.10. 박철균 기록) 증언.
- 유근창(2001.7.27.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 이삼룡(2002. 7.11. 양조훈, 김종민 채록) 증언.

이세호(2001.7.15.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채록) 증언.

李致業(2001, 10.26. 채록) 증언.

조연표(4·3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삼 채록) 증언.

채명신(2001.4.17. 4·3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삼 채록) 증언.

신문

『國際新聞』, 『京鄉新聞』, 『朝鮮日報』, 『漢城日報』, 『自由新聞』, 『朝鮮中央日報』, 『漢城日報』, 『새한민보』.

영문

A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n War』, 2005, University Press of Kansas.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 (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1980, Vol. 2. (1980), pp. 139-197,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3, US Army Milita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from Colonel Brown, 1 July 1948.

웹사이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397&siteId=imhc&menuUIType=sub>.

<https://www.youtube.com/watch?v=hY8aXse5Fw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338>.

[토론 1]

“제11연대 제주 4·3 폭동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에 관한 토론

나 종 삼(전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 역사 왜곡에 관한 박철균 박사의 발표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채택된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로 약칭)는 진상이 심히 왜곡된 보고서여서 12명의 민간중앙위원중 보수측 중앙위원 3명(김점곤, 한광덕, 이황우) 이 사퇴한 가운데 진보측 인사들만이 서명한 반쪽짜리 보고서이고, 진상이 왜곡된 보고서입니다. 왜곡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전부 밝힐 수는 없어 3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왜곡 1) 1948년 2·7폭동에 관련하여 “2월 중순에서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¹⁾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문서지령이 있었습니다. 이의 준비과정에서 핵심당원 220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자 이의 해결책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 2월 22일의 신춘회의에서 무장 폭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경비대까지 동원하려 했던 무장 반란 사건을 중앙당의 지령문까지 부정하면서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²⁾ 고 하면서 진짜인 미군 자료는 감추고 쓸모없는 자료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경찰의 폭압에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춘회의에서 무장폭동을 결정한 2주일쯤 후인 3월 6일에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고 그 뒤로도 3월중에 2명이 더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4·3사건시 경찰의 폭압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4·3을 일으킨 김달삼은 남로당 내부문건에는 4·3을 일으킨 목적을 ①조직의 수호와 방어 ②단선단정 반대라고 기록하고는 월북해서 해주연설에서는 선거반대와 경찰의 폭압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의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이에 좌파들은 김달삼의 연설문을 근거로 4·3은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무장반란사건을 민중항쟁으

1) 주한미육군 971방첩대 격주간보고서, 1948. 2.1~2.15 ;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서, 1948. 2.6 ; 주한미육군 보병제6사단 일일정보보고서 1948. 2. 12

2)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536쪽, 162~165쪽

로 둔갑시킨 것은 엄청난 역사왜곡입니다.

(왜곡 2) 정부보고서는 김익렬과 김달삼간 회담이 큰 성과가 있었던 회담으로 미화시켰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완전히 김달삼의 술수에 넘어간 회담으로 남로당측에 이용만 당한 회담이었습니다.

김달삼은 정부측의 토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담에 응했다고 내부분건에 기록했고³⁾, 김익렬 스스로도 폭도 전원에 대한 무죄사면이나 다름없다고 회담결과를 유고에 기록했습니다⁴⁾. 그리고 김익렬은 회담에 관하여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과 유고를 남겼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두 문건의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보고서에는 김익렬-김달삼 회담시 경찰을 해산하라는 김달삼의 요구에 ‘해산까지는 필요없고 다만 경찰 숫자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자’고 하여 그렇게 합의했는데 정부보고서에는 합의내용에 ‘경찰의 인원 축소와 개편’을 빼버렸습니다.⁵⁾ 이렇게 해 놓고는 김익렬-김달삼 회담이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평화회담이라고 미화시킨 것도 역사왜곡입니다.

(왜곡 3) 정부보고서는 다랑쉬굴의 희생자들을 남로당측 자위대에서 순수한 입산주민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1992년 3월에 구좌면 세화리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총알리 20-30대 청년 7명과 부녀자 3명, 10세 소년 1명 등 11명의 시체를 발견하였고, 철모, 군화, 철창, 대검, 탄피, 낫, 도끼, 곡괭이, 질그릇, 향아리, 가마솥 등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민보단원 2명과 남로당 자위대와 같이 다랑쉬 굴 등 산에서 생활했던 1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였는데, 이들은 구좌면당위원장 정권수가 지휘했던 자위대였습니다. 굴에서 발견된 철모, 군화, 철창, 대검 등 군용장비가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순수한 주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다랑쉬굴 희생자들이 경찰에 학살당한 순수한 입산주민이었다고 하면서 제주경찰서가 제출한 3명의 진술서마저 묵살해 버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다랑쉬굴 방문자들에게 ‘4·3주민학살 현장’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희생자 신분을 남로당 자위대에서 순수한 입산주민으로 바꾸어 버린 역사 왜곡입니다.

오늘 발표자는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관련 왜곡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3)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78쪽

4) 제민일보, 4·3은말한다 제2권, 329쪽

5) 정부4·3진상조사보고서 198쪽

첫째, 발표자는 좌파측의 박진경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주로 해명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반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왜곡 주장의 특징은 자료의 근거 없이 말로만 박진경은 ‘학살자다’ ‘학살의 주범이다’ ‘학살명령을 내렸다’ ‘000명을 체포하여 고문했다’ 고 선동적 주장만 합니다.

학살이란 포로나 민간인을 재판없이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학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슨 자료를 보니 4·3사건시 희생된 0000명 중 몇%인 000명이 박진경 재임기간에 경비대에 의해 재판없이 처형되었으므로 ‘박진경은 4·3사건 학살의 주범’이라고 해야 논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총 희생자 몇 명중 박진경 대령 재임간 몇%인 몇 명이 경비대에 의해 죽었는지 죽은자의 이름과 통계 숫자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반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4·3을 진압한 군 지휘관으로는 박진경(11연대장), 최경록(11연대), 송요찬(9연대장), 함병선(2연대장), 유재흥(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신현준(해병대사령관) 등이 있으며 유족들이 4·3위원회에 제출한 희생자 신고서에 나타난 남로당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된 1949년 6월까지의 월별 희생자 숫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희생자가 발생한 월별 통계이며, 가해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남로당측이 가해자인지 정부측이 가해자인지, 그리고 정부측도 경찰인지 경비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박진경 재임시인 1948년 5~6월은 4·3사건의 초기로서 남로당측의 공세기이고 월별 희생자가 300명 이하로 많지 않으나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17일 이후부터 1949년 1월까지의 정부측의 공세기로서 2,000명 이상으로 희생자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학살의 주범이라고 매도하려면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시기의 군 지휘관을 지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없이 박진경을 학살자 또는 학살의 주범이라고 매도한 것은 분명히 무슨 정략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별 4·3희생자 신고현황⁶⁾

년월별	1948. 4	5	6	7	8	9	10	11
희생자	194	289	157	81	138	153	804	2,205
비 고		박진경	박진경 최경록	최경록 송요찬	8.15 정부수립	송요찬	송요찬	11.17 계엄령

6) 정부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371쪽

월 별	12	1949. 1	2	3	4	5	6	소계
희생자	2,974	2,240	671	361	221	156	117	10,701
비 고	송요찬	함병선	함병선	함병선 유재흥	유재흥	유재흥 함병선	함병선	

저는 박진경 대령 재임간 경비대(병력 : 15개 중대 3,800명⁷⁾)가 4·3 희생자 14,577명⁸⁾ 중 좌파들이 기록한 근거로 하여 0.144%인 21명을 작전간 사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근거 : 좌파시각으로 쓴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 제3권 부록 ‘일지’에서 일기식으로 주민피해내용과 관련자를 미군기록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를 관련자인 경비대, 경찰, 남로당 무장대를 명시하여 수록하였다. 이중 419~428쪽을 보면 박진경 재임간 경비대의 전과는 총 25명이었는데, 이중 6월 3일의 사살 11명은 경찰과 경비대 합동작전에서 얻은 전과였다. 합동작전으로 얻은 전과 11명중 경비대측에 2/3인 7명, 경찰측에 1/3인 4명을 인정하기로 하면 박대령 재임간 경비대의 전과는 21명이 된다.) 이는 학살이 아니고 교전으로 인한 전과입니다. 박진경 연대장이 포로나 무고한 주민을 학살했거나 학살을 지시했다는 자료나 증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측에서는 학살 주장자들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로나 민간인에 대한 고문은 브라운 총사령관과 박진경 11연대장의 작전방침이나 당시 참전했던 채명신, 이세호 등의 증언과 미 고문관이 경비대 작전지역에 상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단 한건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자료에 보면 경비대는 작전간 산간에서 배회하는 민간인 596명을 연행하여 심문센터에 인계하였으며, 경찰, 군(방첩대), 미군 등으로 구성된 포로심문팀이 조사하고 작전중인 6월 2일에는 427명을 심문을 완료하고 석방하였다⁹⁾ 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포로나 입산했던 민간인을 경비대가 직접 다루지 않고 포로심문센터에서 전문가가 조사했다는 증거이며 경비대는 고문할 기회조차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문 주장자들은 말로만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반론자도 고문자료를 요구하면서 반론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83쪽

8) 2022. 3. 14 제주4·3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결정

9)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서, 1948. 6.4

둘째, 박진경 대령 암살의 배후를 규명함에 있어 재판과정에서의 피고들의 주장과 남로당 내부분건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발표자의 결론을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정부보고서에는 문상길과 손선호 등 박대령 암살범들이 재판과정에서 전임 제9연대장 김익렬과 후임 제9연대장 박진경의 작전방침을 비교하고는 ‘무모한 토벌작전을 막기 위해 박대령을 살해했다’고 암살동기를 말한 것과 변호인들이 ‘문 중위 등 암살범들은 산사람(남로당측)의 자령을 받은 일이 없고, 사상적 배경도 없으며, 단지 민족애와 정의감에서 나온 범행이었다’고 한 말은 상세히 수록했으나 남로당 내부분건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전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진경이 5월 6일 제9연대장에 보임되고 다음날인 7일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도원(올구)이 남로당 제주도당에 도착했으며, 3일 후인 5월 10일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 2명(김달삼, 김양근)과 경비대 프락치 대표 2명(오일균 소령, 이윤락 중위)이 회합하고 박진경 연대장 숙청을 결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아 박진경의 암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임이 확실합니다.

남로당 내부분건(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은 1995년 8월 15일 ‘한라산은 알고 있다’란 책명으로 발간된 책자로서 제주도4·3위원회에서 발간한 4·3자료집 제12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의 해당부분 집필자(김종민)가 남로당 내부분건의 내용을 모를 리 없는데, 2002년에 발간한 정부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필자가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과 연계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즉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과 관계가 없는 순수한 주민들이 경찰 등의 패악질에 들고 일어난 민중항쟁론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이는 4·3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관련 자료만 제시하지 말고 ‘암살의 배후는 남로당 중앙당이였다’라고 결론까지를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강조하였으면 저 좋았을 것입니다.

셋째, 1948년 5월 20일 밤에 발생한 제9연대 41명 집단 탈영에 관한 해명에 관하여 설명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인사들이 2021년 4월 2일 KBS 제주방송이 내보낸 ‘1948년 암살’이란 프로에서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자 9연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군인들의 탈영한 것도 그 즈음었다’고 발언하므로써 박진경의 가혹한 토벌작전 때문에 병사들이 탈영한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탈영 날자인 5월 20일에는 박진경 연대장이 토벌작전을 시작하기 10일쯤 전이었고, 제9연대 병력은 아예 연대작전이 실시하기 전까지는 남로당 무장대와 교전을 위해 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탈영사건은 남로당 내부분건에는 프락치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⁰⁾. 따라서 거짓으로 방송한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서는 탈영날자인 5월 20일 전에는 제9연대 병력이 토벌작전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로당 내부분건에도 문상길

10) 한라산은 알고 있다. 81쪽

중위의 지시에 의해 탈영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근거자료만 제시하면 끝날 사안이었습니다.

탈영사건을 설명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결정적인 한두개 자료만 제시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판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남로당측 자료를 제시하면 비판자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오늘 발표자가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진경에 대한 왜곡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내가 칭찬보다는 지적만 한 것 같습니다. 이는 더 좋은 발표를 위한 고언으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제주도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 정부4·3진상보고서에 반하는 발언이나 글로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소위 ‘4·3사건 왜곡방지법’을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대로 역사를 왜곡한 정부4·3진상보고서는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을 봉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경악할 따름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 통과를 저지시켜야 하며, 나아가 왜곡으로 점철된 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토론 2]

“제11연대 제주 4·3 폭동진압 작전과 연대장 암살”에 관한 토론

박 흥 균(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유족회장)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이 제주에서 복무한 43일간의 진실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제주 4·3 사건 포럼 담당자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전 4월 3일을 전후로 보도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진보좌파 언론의 기사를 보며, 제가 존경하고, 스물아홉의 짧은 삶을 마감한, 제 안타까운 마음속의 작은 할아버지인 박진경 대령께서 제주에서 복무한 43일 간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논하기에는 지식과 학식이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박진경 대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유족으로서 진실을 확인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2년전 진보좌파 신문에서 본 제호는 “제주4·3사건의 원흉, 양민 학살의 주범 박진경”이었습니다. 일부 좌익계열에서 박진경 대령을 폄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제주4·3사건의 원흉, 양민 학살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진실을 확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도 아닌 제가 74년 전 벌어진 제주4·3사건과 박진경 대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상의 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박진경 대령은 확실하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수정됨)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숙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박진경 대령은 학창 시절 방학으로 고향집에 오면 이른 아침 매일 마을 골목길 청소를 하고,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는 예의 바른 학생, 일제 침략기치하지만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라며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였고, 그 실력도 우수하였다고, 심지어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어느정도 구사하셨다는 얘기, 남로당 제주도당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억울하게 남로당 프락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똑똑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오열하고 몸져누우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고향 앞바다에 미군함이 들어오고 조포를 쏘는 등 보기 힘든 장례식이 있어 조문 인파와 구경하려는 인파로 조그만 마

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박진경 대령과 너무 다른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진실 확인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제주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사무실을 출입하며 책을 뒤져 보고,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박진경 대령은 제주4·3사건의 원흉이 될 수 없고, 양민학살의 주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고 박진경 대령을 불러 내게 된 배경에는 노무현 정권의 2002년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의 실체, 김익렬의 평화회담의 허구, 해방 후 좌파 언론에 의한 왜곡, 박진경 대령을 제주4·3사건의 원흉, 양민 학살 주범으로 몰아간 배경과 저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4·3사건 포럼을 통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제주에서의 43일의 진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1주제 박철균 박사가 발표한 “제11연대 4·3폭동 진압과 연대장 암살”은 제주 4·3사건이 반국가적 폭동인지 민중을 위한 항쟁인지 그 사건 실체를 파헤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발제 토론에서 진실이 많이 밝혀 졌다고 생각하며, 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폄하와 왜곡의 원인은

첫째, 박진경 대령은 아무 말 못하고 총 한방에 죽음을 맞이 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변명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유고록 이라도 남겨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하였다면 제주4·3사건의 원흉이니, 양민학살 주범이니, 제주도민이 세운 추모비를 철창에 가두는 등 이렇게 고인의 명예가 짓밟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박진경 대령 암살범 문상길 일당에 대한 재판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6·25한국 전쟁으로 소실) 국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보니, 그 당시 언론의 보도 기사가 검증 자료처럼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 일보(간첩 성시백 운영) 의 그 당시 보도를 진의는 파악해 보지도 않고, 언론의 기사를 마치 진실인 것 처럼 정부 보고서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를 현재의 좌파 언론에서 인용하며 보도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80년대 민주화 물결을 타고 발간된 문학작품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을 역사의 진실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는 점입니다. 제주4·3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는 순이 삼촌, 태백산맥 등 문학, 당시의 역사를 표현한 예술작품,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평가와 평론이 역사적 사실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허구와 사실이 뒤 범벅이 된 소설이 무의식적으로 역사서로 인식되는 오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작품들을 토대로 한 영상들이 미디어를 통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은

1948년 박진경 대령 살해범의 재판과정을 보도한 좌파 언론(조선중앙일보외 다수)의 기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형수의 최후 변론에서 만들어진 박진경대령의 제주도민 30만 희생설(강경 진압작전의 대명사)에 대한 보도의 진의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좌파단체에서 평화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진 김익렬, 1988년도에 발간된 그의 회고록이 박진경 대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최대한 활용 함으로써 증폭되고 발전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연구나 확인된 사항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민이 세운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철창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3월 제주도 더불어민주당도의원, 제주 4·3연구소, 제주지역의 좌파 언론, 제주 보훈청을 방문하여 제11연대장 박진경대령의 제주 복무 43일간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과 군사작전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겸연쩍은 미소로 얼버무리며 아무런 말도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4·3연구소의 모 실장은 제주도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하면서 제주도민의 분위기 파악만 하고 있지 진실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좌파 언론은 정부 보고서 또는 시민단체의 현수막 등을 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발뺌 같은 변명을 하더군요. 제가 만나본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보도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보훈청은 추도비 관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현재는 조치가 되었으니 그나마 공무원은 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1주제를 한번이라도 읽어 봐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무현정권의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교묘한 편집이 제주4·3사건에서 박진경 대령과 관련된 사실들을 왜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제주4·3사건에 대한 좌파 언론의 보도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범인의 최후 진술과 김익렬의 유고록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박진경 대령을 평가하도록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주4·3연구소의 모 실장이 말한 제주도민의 정서. 그 정서 무엇입니까?

진실을 덮어 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죽은 자를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게 제주도민의 정서입니까?

정부의 보상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주민에게 주어지면 될 것을 제주 4·3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여 진영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고인의 인격을 말살해도 된다는 게

제주도민의 정서일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자유, 민주화, 평화, 화해 다 좋습니다.

이 단어들의 가치를 앞세워 활동하면서 역사의 진실은 왜곡하고, 반대 진영은 악인으로 몰아 붙이며,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경을 양민 학살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그들의 작태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좌파단체에서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고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살해범 문상길, 손 선호. 그들의 사형 집행장(서울 수색)에서 추모행사를 가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런 상황이 온전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자유 대한민국이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제주4·3평화공원에 “위령탑과 각명비”는

제주4·3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당시 희생자와 가해자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한 인간의 어울림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더군요.

진실을 덮어가며 한 사람의 명예를 짓 밟고, 상징적 추도비를 철창에 가둔 것이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유족회에서는

박진경 대령을 제주4·3사건의 원흉, 양민학살 주범으로 표현하는 손과 입을 막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제주4·3사건을 바로 정립시키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응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실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진실된 화해와 평화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발제 2]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

정 안 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I. 머리말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4·3폭동’은 제주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인민해방군에 의해 통제되는 ‘제주도 인민공화국’을 방불케 했다. 1948~49년 ‘제주4·3폭동’의 결과는 사망자 6만 명, 해방 불명자 4만 명, 가옥 파괴 3만 9285채, 총 400개 마을 가운데 230개 마을이 파괴·소실되었다. ‘제주4·3폭동’의 후폭풍은 제주도 도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1948년 6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제주4·3폭동’을 진압·토벌한 국군은 제11연대장 최경록 중령,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들이었다. 이들은 투철한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내면화한 상무집단이었다. 이들 앵그리 중령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좌익세포를 색출하고, 진압·토벌작전을 단기간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종북 좌파들은 이들을 ‘국가폭력의 하수인’이라며,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왔다.

지난 2월 3일 국힘당 태영호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 발언했다. 그러자 제주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 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며, ‘김일성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주4·3폭동’의 진상은 여전히 역사적 블랙박스이자, 국민적 합의를 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발표에서는 (1)‘제주4·3폭동’의 진상과 관련해서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촉발된 사건’이라는 지난 2월 3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검증한다. (2)1948년 6월부터 1949년 6월에 걸쳐 ‘제주4·3폭동’의 진압·토벌작전을 진두지휘했던 3명의 중령들의 활약과 헌신을 검토한다. (3)계릴라와 양민의 구별이 쉽지 않은 특수한 민정 상황에도 도민들의 협력을 끌어내고, 신속·과감한 토벌작전이 가능했던 앵그리 중령들의 군사적 역량과 원천은 밝히고자 한다.

II. 제주4·3폭동의 진실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 한라산 영봉에서 봉화가 오르면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제주도 인민해방군 350명이 봉기했다. 이들은 12개 경찰지서를 비롯해서 경찰관서, 서북청년단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등 우익단체와 요인들을 살해·방화하면서 ‘제주4·3폭동’이 시작되었다.¹⁾ 이들은 남로당 군사부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총선거’를 방해하고 저지할 목적이었다.

1948년 4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이들 좌익 폭동세력은 제주 전역의 15개 경찰관서 가운데 14개 비롯해서 관공서 기습 53건, 경찰, 경찰 가족, 관공리, 우익 민간인 테러 107건, 경찰서를 포함한 관공서 방화 23건을 기록했다.²⁾ 브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제주도에 별집과도 같은 동굴, 터널, 방어용 벙커 등 일본군이 남겨 놓았던 지형지물에 은폐해 있다가 해안도로와 저지대에 마을을 내려다보이는 한라산에서 내려와 기습 공격했다. 1948년 6월경에 이르러 내륙 마을 대다수는 제주도 인민해방군에 의해 통제되었고, 섬 전역의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었다.³⁾

대한민국 공식기록에 따르면, 1948년 말까지 102건의 전투, 양측에서 5,000명 이상 전투원이 참가해서 약 6,000명의 주민들이 구속되었고, 총 422명의 게릴라들이 피살되었다. 1949년 4월까지 약 2만 가구가 파괴되었고, 섬 인구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약 10만 명이 해안가에 시설된 재건마을에 수용되었다. 1949년 당시 제주도 지사는 비공식적으로 6만 명이 사망했으며, 4만 명이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3만 9285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당시 제주도 지사는 ‘중산간 지대의 가옥들 대다수’가 사라지면서 총 400개 마을 가운데 170개 마을만 남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로당 제주도 인민해방군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58군이 매몰·유기했던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했다.⁴⁾ 제주지구 남로당 총책은 김달삼(본명 이승진)과 부책은 조노구 그리고 제주도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이덕구와 조직부장 김민성이었다. 이들은 남로당 군사총책 이재복의 지령을 받는 직계 비선조직이었다. 이들은 모두 식민지기 태어나고 자란 1944년 학도지원병 출신의 일본군 군사 경력자들이었다.⁵⁾ 그래서 이들은 같은 학도지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169쪽.

2)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30~231쪽.

3) 브루스 커밍스저, 김동노편역(200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310쪽.

4) 일본군 제58군은 3개 사단과 1개의 혼성여단의 편제였고, 병력 규모는 약 6만 명에 달했다. 제58군의 작전 계획은 본토 결전의 일환으로 한라산에 진지를 구축해서 제주, 모슬포, 서귀포의 비행장 사용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라산의 주요 능선을 따라 산간도로를 건설하고 강도진지를 연결해서 한라산 전체를 요새화했다. 이들 1945년 8월 이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운송력 부족과 시간에 쫓기면서 무기와 탄약 등 일부를 매몰/은닉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 제1권(1945-1950.6)』, 437쪽;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24쪽.

5)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24쪽.

원병 출신의 국군 고급 지휘관들과도 나름의 끈끈한 인적 연망을 형성했다.

실제로, 1948년 4월 28일 제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홀로 한라산에 올라서 제주도 남로당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1944년 학도지원병 출신 갑종간부후보생으로 후쿠치야마(福知山) 예비사관학교 동기생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초기 진압작전이 크게 지연되었다. 당시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무장 500명과 비무장 1,000명으로 제주도 시, 읍, 면에 걸친 3개 연대 12개 중대였다.

1946년 11월 제주도 모슬포에서 국군 제3여단 예하 제9연대의 창설은 본토의 다른 지역과 비해서 약 6개월이 지체되었다. 그 이유는 좌익세력의 방해공작으로 병사 모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형식은 연대였지만, 실질은 1개 대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제9연대장 창설 연대장 장창국 소령과 제2대 이치업 소령은 연대 내부의 좌익세력들로부터 독살위협에 시달렸다. 1948년 4월 3일 폭동 발생과 함께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부산 주둔 오일균 소령이 이끄는 제5연대 제2대대를 급파했다. 그러나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군부내 좌익세력의 거두였고, 좌익세력과 내통하면서 토벌작전에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다음은 ‘제주4·3폭동’의 진상이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당 태영호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자 제주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송재호(제주시갑) 의원,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제주 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며, ‘김일성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파상공세에 태영호 의원은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일까? 2000년 북한 당국이 편찬한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은 348~349쪽에 걸쳐 ‘제주4·3폭동’을 ‘제주도 인민봉기’로 명명하고, “미제 침략자들이 조작한 5·10 망국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주체 37(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인민들이 일으킨 반미(反美) 구국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 최고입법기관을 선거하고 전 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시었다”며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조선 노동계급과 함께 제주도 인민들은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반대 배격하는 주체 37(1948)년 2·7구국투쟁에 일어섰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조선대백과사전』은 “주체 37(1948)년 3월 말부터 제주도 인민들은 2·7구국투쟁 때 탈취한 무기로 인민무장자위대를 편성하고 한나산(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렸으며, 4월 3일 새벽 무장항쟁으로 넘어갔다”며 그들은 ‘미제를 타도하라’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인민의 원쑤(원수) 반동 무리들을 처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도처에서 경찰지서들을 습격하고 경찰들과 주구(走狗)놈들을 처단했으며, 미제에 의하여 강제해산 당하였던 인민위원회들을 다시 복구했다고 폭동의 진행과정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김달삼에 관해서 “주체 37(1948)년 4월 제주도 인민봉기와 5·10 단선 반대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주체 37(1948)년 8월 남북총선거 당시 제주도 대표로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왔고 그 후 조국통일을 위한 책임적 위치에서 어려운 혁명 임무를 담당·수행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적구(敵區)에서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다”고 적어 놓고 있다. 아울러 『조선대백과사전』은 김달삼에게 “주체 82(1993)년 7월 15일에 공화국 영웅 칭호가, 주체 79(1990)년 8월 15일에는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제주 4·3 폭동을 김일성의 호소에 호응해 촉발된 사건이며, 주동자 김달삼을 ‘통일애국열사’로 받들고 있다. 요컨대, 지난 2월 13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폭동’ 발언은 북한의 견해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Ⅲ. 앵그리 중령들의 활약

‘제주4·3폭동’의 본격적인 진압·토벌작전은 제11연대장 최경록 중령,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이 담당했다. 이들은 1948~49년 ‘제주4·3폭동’을 일으킨 토착 좌익세력의 토벌·진압 작전에서 발군의 군사적 역량을 발휘했다. 그 실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1연대장 최경록 중령

1948년 5월 6일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2, 제3, 제4연대로부터 착출한 기간요원을 중심으로 수원에서 제11연대를 창설한 후 제주도에 급파했다. 그러나 제11연대는 1개 대대 병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9연대 해산하고 재편한 제1대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합편시켰다. 1948년 5월 15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제11연대장에는 식민지기 학도지원병 출신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수료한 박진경(대판외국어학교 영문과) 중령을 발탁했다.⁶⁾ 박진경 중령은 당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국장으로 능통한 영어 회화, 인격, 수완으로 미 군사고문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⁷⁾ 제11연대 작전참모는 일본

6)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17쪽.

군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임부택 대위가 발탁되었다.

제11연대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과 좌익세포들이 암약하는 와중에서도 부대를 한림, 서귀포, 성산포에 분산 배치해서 입산 주민들의 하산 종용과 민심 수습을 위한 선무공작 그리고 부락별 자위대를 조직해서 주민과 게릴라의 분리와 고립화를 꾀했다.⁸⁾ 제주도의 부락별 자위대는 한국 최초의 민방위 조직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48년 6월 18일 박진경 대령이 숙소에서 제3중대장 문상길(충남 출신, 학도지원병 출신 일본군 하사관,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생) 중위가 사주한 연대 내부의 좌익 세포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⁹⁾ 이는 군내 좌익세포에 의한 국군 최초 고급장교의 암살이었다.

1948년 당시 제11연대 작전과장이었던 임부택 대위는 “박대령의 비보를 들은 나는 그 비통함을 형언할 수 없었다.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함께 제주로 왔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으니 이는 마치 내 친형이 전사한 것 이상으로 비통”¹⁰⁾했다고 회고했다. 존경하는 박진경 대령의 피살에 격분한 임부택 대위는 연대 작전과장을 고사하고 곧바로 제11연대 제1대대장으로 인민해방군 토벌의 선봉장을 자원하고 나섰다.

1948년 6월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주 도지사 박경훈을 비롯해서 도민 약 80퍼센트가 좌경화되어 ‘제주도 인민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미군사고문단은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제11연대장으로 최경록 중령과 부연대장 송요찬 소령을 발탁했다. 이들의 발탁은 당시 한국군 내부적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최강의 군사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발탁과 관련해서 6월 21일 당시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¹¹⁾

오늘 우리는 최(경록) 중령을 제11연대 연대장으로 송(요찬) 소령을 부연대장으로 파견했다. 최 중령은 이곳의 모든 지휘관들로부터 선택되었으며, 본인도 그를 좋아하며 그의 경력이 아주 훌륭한 것 같다. 본인은 송 소령이 강인하며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감찰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 소령은 우리가 보유하는 최상의 장교이며, 우리는 그를 감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48년 6월 이래 제11연대장과 제9연대장을 겸했던 최경록 중령은 부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나섰고, 부임 일주일만에 박진경 대령의 암살범으로 문상길 중위와 정보과 선임하사관 최상사를 색출하는 전과를 올렸다.¹²⁾ 이어서 당시 제9연대 제1대대장을 거쳐

7) 대한민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제1권)』, 440쪽.

8) 이원복(1996), 『타이거 장군 송요찬』, 육군교육사령부, 85~86쪽.

9) 임부택(1996), 『洛東江에서 楚山까지』, 그루터기, 40쪽.

10) 임부택(1996), 『洛東江에서 楚山까지』, 그루터기, 40쪽.

1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34쪽; 허호준(2011), 「미군 고문관들의 제4·3 경험과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제11권 제1호.

수용소 소장으로 이적행위를 주도했던 좌익 거두 오일균(일본 육군사관학교 제61기) 소령을 체포하는데도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제9연대에 잠복하는 좌익분자의 끈질긴 색출과 함께 대대적인 숙군작업에 착수했다. 문상길 중위의 체포와 처형은 사실상 국군 최초의 숙군작업의 신호탄이었다. 최경록 중령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와 함께 무차별 연행 작전을 실시했다.

인민유격대와 양민의 분리공작, 좌익 용의자들에 대한 선무공작, 부락별 자위조직의 확대·강화, 경찰과의 역할 분담 등 과감한 토벌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그 때문에 인민해방군은 장기항전 체제로 전환해서 한라산으로 잠적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조선경비대 사령부는 제주도가 표면적으로 질서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했다. 1948년 7월 15일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병력 교체를 포함한 제9연대 재편성과 제11연대의 원대 복귀를 조치했다. 제1차 토벌작전의 전과에 따라 최경록 중령은 대령, 임부택 대위는 소령으로 각각 진급했다.

2.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11연대 부연대장으로 문상길과 오일균 등 군내 좌익색출과 게릴라 토벌에서 수완을 발휘한 송요찬 소령의 중령 진급과 함께 제9연대장 보직을 명령했다. 제9연대는 제11연대를 대신해서 제주폭동 진압작전을 전담하게 되었다.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11연대 이탈에 따른 병력 보충을 위해서 대구 주둔의 제6연대 2개 중대 350명을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 제6연대는 좌익성향이 강한 연대였다. 실제로 제6연대는 1948년 11월 이후 3차례의 반란사건이 발생한 부대였다. 강한 결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의 소유자였고 국군의 맹장으로 알려진 송요찬 중령은 연대 정보참모를 앞세운 철저한 좌경분자 색출과 함께 약 1개월에 걸쳐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집중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제9연대는 대한민국 육군 예하부대로 편입되었다. 약 1개월 동안 부대정비를 마친 제9연대는 1948년 9월부터 작전계획에 따라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는 인민해방군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정 파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한라산 일대의 토기몰이식 게릴라 소탕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양민을 가장한 프락치들이 토벌대의 동태를 감시하고 한라산에 잠적한 인민해방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때문에 게릴라 토벌은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수립했다. 즉, 중산간 지대의 생업 농민들을 하산시켜 수용소에 수용한 다음 이들의 성분을 분류해서 좌익분자에 대한 사상 선도를 실시했다. 또한, 좌익 활동의 전향자를 앞세워 인민해방군에 대한 뼈라를

1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29쪽.

살포하는 등 선무 및 귀순공작에 착수했다. 송요찬 중령이 추진한 해안선 5킬로미터 이외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과 선무공작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작전 개시 며칠 만에 귀순하는 피난민과 좌익계릴들이 약 1,000여명에 달했다. 그래서 당시 미 군사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송요찬 중령은 섬 주민들의 당초 적대적인 태도를 우회적인 태도로 바꾸는데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¹³⁾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동요에 당황한 남로당군사부와 제주도 인민해방군은 제9연대와 일전을 불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1948년 10월 혁명기념일을 기해서 도순과 오동리 지서를 습격하는 등 공세를 재개했다. 10월 공세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피아 약 550명을 기록했다. 1948년 10월 11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육군본부는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했다. 사령관에는 김상겸(폴란드군 육군 대좌 출신) 대령을 임명했다. 제5연대, 제6연대, 제9연대, 제14연대로부터 1개 대대씩을 착출하고 해군과 제주경찰대를 통합 지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벌작전을 의도했다.¹⁴⁾ 10월 20일 제주도 출동을 앞둔 여수 주둔 제14연대에서 여수·순천반란이 발생했다.

제9연대의 좌익 계릴라 토벌은 매번 작전기미일이 누설되면서 이들의 포착에 실패하였고,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연대내 좌익세포 색출을 더욱 강화했다. 1948년 10월 말 송요찬 중령은 조천지구에서 활동하는 계릴라 소탕을 위해 제5중대장 이근양 중위를 시켜 일부 병력을 여순 반란군을 가장하고 해상으로부터 침투상륙해서 조천지구의 좌익 계릴라 소탕을 명령했다.

좌익 계릴라 포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순 반란군을 가장한다면, 조천지구 계릴라들이 환영하고 나올 것이 분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놀라운 기만작전이 었다.¹⁵⁾ 이는 일본군이 만주와 북지에서 비적 토벌에서 사용한 작전이었다.¹⁶⁾ 하지만, 송요찬 중령은 우연히도 합선된 전화기를 통해서 연대의 모 하사관이 작전계획을 계릴라들에게 비밀리에 알리는 것을 도청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을 호출해서 연대 통신대의 전화교환병과 경찰청의 전화교환수를 체포했다. 이들을 심문해서 제9연대 내부에 침투한 장교와 하사관을 포함한 약 80명에 달하는 좌익세포를 검속하는데 성공했다.¹⁷⁾ 제9연대 내부의 좌익세포가 일망타진하면서 남로당 군사부의 제주도 무장투쟁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제9연대는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한림에 주둔하는 제6중대가 대낮에 기습을 받아 중대장을 비롯한 14명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송요찬 중령은 재차 제3중대 출동과 함께 진두지휘에 앞장섰다. 그러나 제3중대장을 비롯한 다수의 부상자와 전사자를 기록하였고, 기관총과 장비를 좌익 계릴라들에게 탈취당하고 후퇴해야 했다. 하지만, 송

1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52쪽.

14)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38쪽.

15) 이원복(1996), 『타이거 장군 송요찬』, 육군교육사령부, 105~106쪽.

16)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39쪽.

17) 대한민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제1권)』, 443쪽.

요찬 중령은 ‘한번 걷어 채인 돌에 두 번 다시 채이지 않는다’는 독심과 신념에 따라 야간에 제5중대를 출동시켜 좌익 게릴라들을 근거리에서 포위·기습해서 약 1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송요찬 중령은 생포한 포로를 앞세운 수색작전으로 전환해서 게릴라 아지트는 물론이고 보급창과 무기수리창을 색출하고 파괴했다. 이로 인해 좌익무장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제9연대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제주도 인민해방군은 병력을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전면적인 조직재편이 불가피했다.

1948년 10월 24일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서귀포 경찰서를 습격해서 반격작전의 기세를 올렸다. 11월 3일 제9연대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해서 제주도 인민해방군 주력 약 2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8년 9월 이래 제9연대의 제2차 토벌작전을 완료했다.

3.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

1948년 12월 29일 제9연대는 함병선 중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와 맞교대하게 되었다. 제2연대는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에 참전해서 사상 검증과 실전 경험을 쌓은 실전부대였다.

제2연대가 제주도 작전권을 인수할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함병선 중령은 “이제 공비는 손으로 헤아릴 정도의 숫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상은 달랐다. 오갈데 없는 많은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려 공비 숫자가 급증”¹⁸⁾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송요찬 중령이 지휘하는 제9연대가 철저하고 과감한 중산간 초토화 작전으로 단기간에 토벌작전의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백 30여개의 중산간 마을이 소실되면서 약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월동을 앞두고 해안가와 허허벌판에 내몰린 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정황이었다.

함병선 중령의 제2연대장 보직은 1948년 12월 7일이었다. 함병선 중령은 연대본부와 제2대대를 제주시, 제1대대는 서귀포, 서북청년단 출신 제3대대는 한라산 북측의 오동리에 배치해서 인민해방군 소탕을 위한 협격 태세를 유지했다.¹⁹⁾ 함병선 중령은 심각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지역 유력자들의 조언에 따라 제1단계의 “제2연대 선무공작”²⁰⁾을 결정했다. 선무공작의 핵심은 1만 5,000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재건부락 함명리(함병선 중령과 작전 참모 김명의 이름을 따서 명명) 건설, 갱생자금 살포, 구호물자 배급, 게릴라 귀순 종용, 중

18) 백선엽(1992), 『實錄 지리산』, 고려원, 126쪽.

19)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306쪽.

20) 제2연대 선무공작의 핵심은 “제주도민이 폭도건 양민이건 서로 끈끈한 핏줄로 얹혀 있다. 길진 억새풀 뿌리처럼 살을 맞비비며 수십 세기를 살아온 공동체이다. 이것을 단순히 피아로 또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진압·소탕하려는 것은 제주도의 실상을 너무 모른 데서 나온 방법이며,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홍(2005), 『장군이 된 이등병』, 화남, 106~107쪽.

화기의 대대적인 위력시위, 부대원들의 현지 결혼장려 등이었다.

함병선 중령은 제2연대 부대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의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는 한편, 민폐 근절과 민심 수습에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을 갱생시키고자 노력했다. 주요 면소재지에서는 면민대회를 개최해서 무장 게릴라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한편, 최신예 무기의 위력 시범과 함께 토벌작전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²¹⁾ 1949년 3월 제주도전투사령부 설치와 함께 선무공작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한 함병선 중령은 육해공군과 연합하는 제2단계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관련해서 함병선 중령은 종래 “온건 완화 작전을 취하여 오던 국군은 최후적 결의를 갖고 제3단계인 무력소탕 태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3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의 일대 섬멸전이 그것이다”²²⁾라고 밝혔다.

제2연대는 게릴라들의 주요 병기창과 보급창을 색출해서 당시 제주시 공격을 준비하던 게릴라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²³⁾ 6월 7일 제주도 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를 비롯한 한라산에 잠적하는 게릴라 대부분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²⁴⁾ 1949년 6월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했다. 1949년 7월 제2연대는 제주도 경비업무를 독립 제11대대에 인계하고는 북한군의 도발이 빈번한 옹진지구로 기동했다.²⁵⁾ 대한민국 건국기 함병선 대령이 지휘하는 우리 제2연대는 여수·순천, 제주도, 옹진, 흥천, 춘천을 오가는 “전쟁의 청소부”²⁶⁾를 자처했다.

1948년 4월 이래 ‘제주4·3폭동’은 함병선 중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의 치밀한 선무공작과 과감한 소탕작전이 도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수습되었다. 그래서 1949년 6월 제주 도민들은 한라산 정상과 서귀포시에 송덕비를 세워서 함병선 중령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1949년 3월 이래 제주도전투사령관을 역임했던 유재흥 장군은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과 관련해서 “그는 직선적이었으나 전술에 관한 식견이 높아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다. … 도지사, 경찰국장을 비롯하여 말단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친화를 맺음으로써 흔히 공비토벌 지역에서 볼수있는 민, 관, 군의 마찰을 한 건도 없게 하여 소기의 안정을 되찾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²⁷⁾고 증언했다.

‘제주4·3폭동’의 수습은 함병선 중령의 끈질긴 인내력, 결단력, 치밀함을 요구하는 선무공작과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토벌작전의 성과였다.

21) 대한민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제1권)』, 445쪽.

22) 『경향신문』1949년 6월 29일자.

23)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原書房, 224쪽.

24) 백선엽(1992), 『實錄 지리산』, 고려원, 130쪽.

25) 육군본부(1970), 『육군발전사(상권)』, 육군본부, 248쪽.

26) 이계홍(2005), 『장군이 된 이등병』, 화남, 117~118쪽.

27) 유재흥(1994),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97~98쪽.

IV. 앵그리 중령들, 이들은 누구인가

1948년 6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제주4·3폭동’을 진압·토벌한 최경록, 송요찬, 함병선 중령은 식민지기 육군특별지원병 출신들이다. 육군특별지원병이란 육군특별지원병이란 1938~43년에 걸쳐 시행한 육군특별지원병제에 의해 양성된 식민지 출신의 일본군 병사를 말한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선발 전형은 모집 정원 1만 7500명에 대해 80만 3317명의 지원자가 응모하면서 약 46대 1의 지원자 경쟁율을 기록했다.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가 실시하는 3차에 걸쳐 엄선주의 선발전형을 통과한 조선인 출신 육군특별지원병은 지원자 총원의 2.3퍼센트에 상당하는 1만 8594명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들은 전근대 상민 출신이자 남한지역 중농층 가계의 차남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인 아동 취학율이 30퍼센트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이었다. 이들 중농층은 전근대 양반 출신의 상류층과 달리 출세 지향성이 강한 상민층 출신이었고, 가계 경제력의 확충과 자식들의 근대교육에도 힘써 왔던 보다 역동적인 조선인 계층이었다. 제2차 조선총독부 선발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는 이른바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도장(道場)’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해서 일본군 병영생활에 적응하는 시간, 신체, 언어의 규율화와 함께 군대적 평등성을 자기화하면서 정강한 ‘제국의 침병’으로 훈육되고 단련되었다.

1939년 이래 이들은 일본군의 일원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했다. 이들의 중일전쟁 참전은 ‘상무정신’으로 충만한 조선인의 군사적 자질과 조선인의 충량한 일본 국민됨을 시험하는 역사적인 무대였다. 육군특별지원병의 중일전쟁 참전은 좌옹 윤치호의 지적과 같이 조선인의 문약사회(文弱社會)를 혁파하고 “민족의 재무장”²⁸⁾을 알리는 조선 민족사의 새로운 서막이었다. 1943~45년 이들은 뉴기니아, 필리핀, 버마 등 아시아태평양전쟁에도 동원되었다.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열대밀림, 해발 3~4000미터의 고산지대, 광활한 늪지대를 누비며 고군분투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극한의 전장 환경과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치열한 생존투쟁을 돌파했다.²⁹⁾

이들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풍부한 군사지식과 실전경험을 쌓았다. 1946년 이래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사관학교 등 다양한 군사학교를 거쳐 대한민국 국군 초급장교에 임관했다. 이들은 미군정기, 건국기, 한국전쟁기 최일선 부대장으로 병력과 화력의 열세에도 북한군의 남침기도를 저지·분쇄하는 발군의 군사적 역량을 발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창군, 건국, 호국의 주역들이었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멸공

28) 박정신역(2016),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7쪽.

29) 1943~45년 조선군 제20사단 소속 특별지원병으로 뉴기니아 전선에 참전했던 김시형과 유기화의 증언. 林えいたい(1995), 『証言集, 朝鮮人皇軍兵士』, 拓植書房, 270/176쪽.

의 햇불 아래 죽기를 다짐했던 ‘조국의 간성’들이었다.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는 춘천대첩의 임부택 장군만을 비롯해서 이화령 전투의 함병선 장군, 기계·안강전투의 송요찬 장군, 국민방위군 사건의 최경록 장군, 백암산 전투의 박경원 장군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육군 장성급 진급자는 제11대 합참의장을 역임한 문형태 대장 등 약 85명에 달한다.

V. 맺음말

1948~49년 ‘제주4·3폭동’ 진압작전은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군사경력자들의 군사적 역량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역사적인 무대였다. 6·25전쟁기 승리의 창조자 백선엽 대장의 증언과도 같이 이들은 “사상적으로 전혀 불안이 없었고, 발군의 전투지휘 능력”³⁰⁾을 발휘했던 국군 최강의 상무집단이었고,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시키는 합법적인 물리력의 핵심이었다. 머리말에서 제기한 논점과 관련해서 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폭동’의 진상과 관련해서 ‘김일성의 명령으로 촉발된 폭동사건’이라는 2023년 2월 3일 국민의힘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다. 실제로, 북한이 편찬한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제주도 인민봉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제주도 인민들이 의 ‘반미(反美) 구국항쟁’이요, 주동자 김달삼도 ‘통일애국열사’로 떠받들고 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제주4·3폭동’의 역사적 진실과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1948년 6월부터 1949년 6월에 걸쳐 ‘제주4·3폭동’ 진압·토벌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최경록, 송요찬, 함병선 3명의 앵그리 중령들은 끈질긴 인내력, 결단력, 치밀함을 요구하는 선무공작과 솔선수범하는 진압·토벌작전으로 단기간에 한라산에 잠복하는 인민해방군을 분쇄하고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민, 관, 군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

셋째, 앵그리 중령들이 게릴라와 양민의 구별이 쉽지 않은 특수한 민정 상황에도 도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신속·과감한 토벌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식민지기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 제1~2기 출신으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거치면서 다양한 군사지식과 실전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투철한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내면화한 국군 최강의 상무집단이자, 호국의 주역들이었다.

30) 佐々木春隆(1976), 『朝鮮戦争 韓国編(上)』, 原書房, 241쪽.

[토론 1]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에 관한 토론

이 주 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I.

정안기 박사는 좌익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지르는 올가미인 ‘친일’ 프레임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있게,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 식민지기 시대를 회상,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발제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기념사와 방일, 한일정상회담으로 다시 불거진 ‘친일’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군사분야에서 일본의 1차 사료를 많이 섭렵한 점은 일본측 사료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연구방식에서 반성해야할 점이다.

정안기 박사의 발제문은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 속에 조선학도병을 다룬 그의 역저, 『충성과 반역』(조갑제닷컴, 2020)의 내용 일부에서 최근 논란거리가 된 태영호 최고위원(국민의힘당)의 ‘김일성 지시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고 제주4·3폭동의 진압에 공을 세운 3인, 최경록(제11연대장), 송요찬(제9연대장), 함병선(제2연대장) 중령 등을 재평가한 것이다.

정안기 박사는 건국의 기초를 일제 후반기로 보고 있는 특이한 역사인식의 지식인이다. 기독교신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제 고난의 시기를 건국이라는 축복을 준비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교육과 훈련을 부정적인 단기적 해독(害毒)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쓴 보약(補藥)으로 보는 점에서 이스라엘민족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모진 노예생활을 했지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서 가나안으로 탈출했던 구약의 시절을 연상케한다.

위 3명의 중령들이 진압에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저자는 일제 강점(식민)기 군경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건국의 영웅들’이라고 질타한다. 건국된 지 어언 75년, 국민소득 1인당 3만불의 와중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재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매 주말마다 노래자랑과 트롯트에 찌들은 국민들, 특히 스마트폰에 올빡한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다.

제주4·3진압작전에서 3명의 중령 모두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으로 군사교육과 사생관, 건국에 대해 공통적 인식을 소유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I.

정안기 박사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증언 신빙성을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북한이 2000년에 발간한 『조선대백과사전』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북한사전만을 그 근거로 해서 ‘김일성 지시설’을 논증한다는 것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 북한사전은 2000년에 발간되었고, 1948년으로부터 무려 52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북한사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역사왜곡과 사료조작이 심한 것이 공산권의 학문적 특성임도 고려해야 한다면 추가적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김일성 지시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임캡슐을 타고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본다. 1945년 8월 해방정국에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 활동을 주목해 본다면, 박헌영(당시 45세)과 12년 연하의 김일성(당시 33세)이 치열한 공산주의 운동의 헤게모니 투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해방이후 장안(서울)에 조선공산당 중앙이 있었기에 북한에서 또 다른 공산당 조직의 설치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원래 코민테른의 지침에 의하면, 1국1당주의(한나라에 공산당은 하나)원칙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또 다른 공산당이 결성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모스크바 → 서울중앙 → 평양으로의 통신구조에 못마땅해했다. 그는 소련군정이 통치하는 북조선의 정세와 미군정이 통치하는 남조선의 정세가 상이하기에 조직노선과 정치노선도 달라야한다고 집요하게 설득했다.¹⁾ 그 결과 남한에서 조선공산당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헌영의 양해와 소련군의 허락하에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된다. 그 핵심세력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그룹이었다. 그리고 1946년 4월말, 북조선분국은 다시 북한공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김일성이 아니었다. 다음 해 1946년 8월 29일, 북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이 합당, 북조선로동당(북로당)으로 창설되었다.²⁾ 위원장은 김두봉, 부위원장은 김일성, 주영하 등이었다. 처음 북로당이 창설될 때는 위원장은 김두봉이었지만,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그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한편, 북한에서 김일성이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북로당 당권을 장악하는 수순을 밟아갈 무렵, 조선공산당의 총책, 남한의 박헌영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해 5월 정판서위폐 사건으로 조공이 불법화되자,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망을 피해 장례식장 뒤 시체로 위장, 9월말 38선을 넘었다. 45년말부터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이 했던 박헌영으로서는 이번 입북이 고향을 등질 마지막이 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

1) 박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선인, 2019, 초판 4쇄), 133.

2) 명칭을 공산당에서 노동당으로 고친 것은 45년 가을과 겨울에 신의주학생의거 등 반공의거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발을 인식한 김일성이 공산당이란 명칭을 바꾸었다는 지적도 있다.

1946년 11월 23일, 남한의 좌익공산당 3당인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여운형의 인민당, 백남운의 신민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으로 통합되고 이북으로 피신한 박헌영이 양보하여 여운형이 위원장, 박헌영이 부위원장이 되었다. 남북한의 공산당들의 통합에는 김일성의 야심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스탈린과 소군정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체류하게 된 박헌영의 핵심 아지트는 두 곳이었다. 하나는 해주에서 출판사를 차려 아지트로 삼고 대남지령을 내렸다. 또 하나는 이남에서 올라온 수백명의 남로당원들을 평양인근의 강동정치학원으로 이곳에서 합숙시키면서 공산주의 이론 및 대남빨치산 훈련을 시켜서 수시로 남쪽으로 파견하여 유격대 투쟁을 후방에서 선무 지휘했다.

박헌영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김일성에게 보고되었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食客 혹은 불모로 전략한 것이다. 박헌영은 자신의 친서를 직접 스탈린에게 보낸 적도 있지만, 스탈린은 박헌영의 서신을 김일성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래 자료는 미군정청 사령부 경무부에서 보낸 보고서인데, 제목 <남조선 내 체제전복 활동: 남조선 경찰과 충돌하는 적대적 힘을 다루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강경 조치를 제안하는 분석 보고서>로 그중 일부 ‘IV. 체제전복적 운동의 작용기제: 발전 양상 및 위법성’을 발췌하였다. 아래 표에서 47년경에는 모스크바 공산당 → 북조선공산당 → 남조선 공산당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박헌영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수신 : 군정장관 미육군 소장 아처 러치(Archer L. Lerch)

경유 : 경무부 고문 W.H. 매글린(W.H. Maglin) 대령, 안재홍 민정장관

“이제 남조선에서 체제전복적 활동이 어떤 작용 기제로 수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모스크바 공산당이 논지를 발표한다. 그러면 북조선 공산당이 남조선 공산당과 협의하여 그 논지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계획을 세운다. 남조선 공산당은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종의 정치적 청산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넘긴다. 계획을 넘겨받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인민위원회, 인민당, 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산하 집단에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다. 좌파 운동의 작용기제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스크바 공산당→북조선 공산당→남조선 공산당→민주주의민족전선→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인민위원회, 인민당, 문화협회 등³⁾ 조 병옥 부장 경무부(1947년 4월 14일)

3) From 미군정청 사령부 경무부 NARA (RG 554, Entry 1256, Box 41, 346-354면,

제주4·3폭동이 발생하던 시기에 박헌영은 남북한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일성을 동행하여 거의 모든 북로당과 남로당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미 實權은 없었다. 그 단적인 예로,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한 평양회의에서 별다른 발언과 지시사항을 내놓지 못한채 김일성의 지시를 묵묵히 경청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1948년 9월, 북한이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했을 당시에 부수상과 외상을 겸직했지만, 자신의 최측근 이강국을 그가 원하는 직책에 임명하도록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정리한다면, 박헌영이 대남공작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도 소련군정이나 김일성의 양해와 지원없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결국 제주4·3폭동은 공식적으로는 남로당의 박헌영이 앞장서고 배후에서는 북로당의 김일성이 화끈하게 지원했던 양자간의 作品이라는 생각이 든다.

III.

김일성의 남북한 공산당을 지배하려는 야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1946년 겨울, 때마침 주은래의 추천 서신을 가지고 평양에 온 성시백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남한에 파견하여 공작임무를 맡겼다. 성시백에게 남한지부 북로당 총책으로, ‘남반부 정치위원회’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성시백은 남한에서 정계, 재계, 군부, 언론 등 광범하게 푸락치를 침투, 포섭했으며, 박헌영의 남로당계열에서 소외, 불만을 품던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인물들을 북로당에 충성하도록 하여, 남한에서 북로당의 세를 확장하는 한편 남로당의 세력을 위축시켰다. 이 과정에서 성시백의 막강한 자금력이 발휘되었다. 그는 남북한 비밀교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북에서 못쓰게 된 구조선은행권을 가져와서 남한에서 무차별 살포하였다.⁴⁾ 실제로, 1949년 3월에 발생한 ‘국회푸락치사건’⁵⁾과 국군 2개 대대 월북도 성시백이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미군정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응하여 화폐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미 재무성이 반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뒤 이승만정부는 급히 화폐개혁 조치를 취했다.

제주4·3사건과 연관된 의혹은 과연 성시백의 막강한 자금력이 폭동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4) 박갑동, 박헌영(인간사, 1988, 4판), 236.

5)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푸락치’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내용으로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던 이승만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6.25전쟁이 일어나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고 대부분 월북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

하는 점이다. 제주4·3은 남로당제주도당이 폭동을 주도했길래, 엄밀하게 말해서 성시백의 관할구역은 아니었고, 현재까지 뚜렷한 개입 증거나 증언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48년 4·3사건이 터질 무렵, 성시백의 최대 관심사는 김구와 김규식 등을 포섭, 평양에 초청하여 남북한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건국 와중에서 북로당과 남로당과의 통합도 서둘렀다. 북조선노동당은 건국직전인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로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후인 다음 해, 1949년 6월 30일에 북로당과 남로당은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박헌영』의 평전을 쓴 박갑동의 회고에 의하면, 6·25남침직전에도 남한의 남로당 주요 핵심당원들은 남로당이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IV.

제주4·3에 성시백의 개입여부보다도 더 많은 의혹을 가지는 것은 소련의 개입여부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쟁의 원인이 된 2014년 돈바스사태에서도 러시아의 무기와 자금지원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정부가 러시아인들을 탄압한다는 것을 구실로 러시아는 돈바스지역을 불법, 점령했었다. 그런데 2차대전 직후 구소련의 야욕과 제국주의적 행보는 2014년보다 훨씬 강력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착안하여 아래의 4가지 점에서 제주4·3에 대한 소련의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1) 슈티코프비망록과 레베데프 비망록은 해방이후에서 건국에 이르기까지 남한에서의 폭동과 시위에 소련의 지침과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박헌영에게 노골적인 자금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2) 그것들은 완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공개되었을 뿐이다. 전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

(3) 2차대전직후 냉전초기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당의 폭동과 파업, 더 나아가 정권전복 시도 등이 빈번하였다. 그 배후에 소련이 비밀리에 무기, 탄약, 혁명공작금 등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의 내전(46-49)과 터어키(1946)의 반란사건이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트루먼독트린(1947.3)이 선포된 것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1946-48),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크고 작은 공산당의 폭동과 파업이 있었다. 과연 전후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했던 소련이 각종 분쟁지역과 권력의 교체기에 처한 신생약소국에 크고 작은 비밀개입, 무기제공, 혁명공작금과 같은 지원들

이 있었는데 유독 제주4·3을 점잖게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4) 1946년 7월 10일,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정기보고(제270호)에 의하면, 제주도에 소련 군함의 좌초(6.27)와 출몰(6.29), 그리고 소련선박의 조난사고(6.30)를 보고한 기록이 있었다.⁶⁾

정보참모부 정기보고 제270호 (소련 군함 제주도 출몰)

- 주한미육군사령부, 1946년 7월 10일, 53면

6월 27일, 소련 군함 엔에세이(ENESSEY) 호가 제주도 해안 0.5 마일 지점 조천리 부근에서 좌초했다.

6월 29일, 엔에세이 호보다 조금 더 큰 군함이 예인선 크기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같은 위치에 나타나 해안가 4마일 지점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군정 장교와 6사단 장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경찰 순시선을 타고 나갔지만 순시선이 접근하자 군함 2척은 북동쪽으로 도주했다.

6월 30일, 군정 장교 2명과 6사단 장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좌초된 선박에 승선했다. 선장은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소련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 이 선박의 고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문 발송은 미군 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V.

최근 좌익들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민중항쟁론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김일성 지시설’ 발언으로 제주4·3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5.18특별법의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것은 학문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헌성이 있는 ‘惡法’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건국과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우익이 역사전쟁에서 패하고 법률전쟁에서도 패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런 악법의 통과를 막는 방안도 이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체측에 간곡하게 부탁해 본다.

6) 출처 : NARA (RG 554, Entry 1256, Box 46)

[토론 2]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에 관한 토론

이 승 학(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상임대표)

토론자 이승학입니다. 오늘 정안기 박사께서 “‘제주4·3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의 발제를 가지고에 대하여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는 주제 발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견해가 다른 부분을 토론을 해야 함이 옳을 듯 합니다.

“‘제주4·3폭동’의 진상과 관련해서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촉발된 사건’이라는 지난 2월 3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검증한다.”의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조병옥 경무부장은 미군정장관 미 육군소장 아처러치에 보낸 분석 보고서에 보면 “남조선노동당은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종의 정치적 청산소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넘긴다. 계획을 넘겨 받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인민위원회, 인민당, 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산하 집단에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다. 좌파운동의 작용기제 진행 순서는 모스크바공산당 → 북조선공산당 → 남조선공산당 → 민주주의민족전선 → 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인민위원회, 인민당, 문화협회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우선 잘못된 부분을 살펴 보면

‘1948~49년 ‘제주4·3폭동’의 결과는 사망자 6만 명, 해방불명자 4만 명, 가옥 파괴 3만 9285채, 총 400개 마을 가운데 230개 마을이 파괴·소실되었다’의 발표문 내용중에 사망자 6만명은 어디 통계에서 인용을 하셨는지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2002년 11월 ~ 2020년 6월까지의 4·3사건 희생자 명단의 수는 14,533명입니다.

☞ ‘1949년 당시 제주도지사는 비공식적으로 6만 명이 사망했으며, 4만 명이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공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서 근거한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 제주지구 남로당 총책은 김달삼(본명 이승진)과 부책은 조노구 그리고 제주도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이덕구와 조직부장 김민성이었다. 라고 발표하셨는데,

* 남로당 총책이 아니라 남로당전남도당제주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 합니다. 김달삼은 4·3폭동시 당 조직부장과 군사총책인 초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맡았으며 조노구는 조몽구로 부위원장과 당조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덕구는 제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김민성은 김대진이 아닌가 하며 이덕구 밑에서 부사령관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1948년 4월 3일 폭동 발생과 함께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부산 주둔 오일균 소령이 이끄는 제5연대 제2대대를 급파했다.’ 의 내용을 지적하면

* 제5연대 제2대대는 4월 3일이 아니라 4월 20일 아침 제주에 도착하여 제9연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9연대와 함께 군정중대장 겸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의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1948년 5월 6일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2, 제3, 제4연대로부터 착출한 기간요원을 중심으로 수원에서 제11연대를 창설한 후 제주도에 급파했다.’ 의 내용을 지적하면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1948년 5월 1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2·3대대)를 5월 6일자로 제주도로 이동토록 하고, 연대본부는 5월 15일부로 제주도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5월 15일부로 제9연대와 제11연대를 작전간 합편하며, 초대 11연대장에 제9연대장인 박진경 중령을 전보발령하고, 명령상 9연대 제1대대장인 임부택 대위를 9연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으나 9연대 1대대장, 9연대장 직무대리, 9연대장 등의 명령이 났으나 작전과장 임무가 막중하여 박진경 연대장을 보좌하기 위해 11연대 작전과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11연대는 3개대대로서 제1대대는 4월 20일에 제5연대에서 제주도에 파견된 오일균 대대이고, 제2대대(3연대 1개중대, 4연대 1개중대, 제6연대 2개중대로 편성)는 김도영 소령이 지휘하였으며, 제3대대(2연대 2개중대, 3연대 1개중대, 4연대 1개중대로 편성)는 대대장이 공석이었다.

☞ ‘1948년 5월 15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제11연대장에는 식민지기 학도지원병 출신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수료한 박진경(대판외국어학교 영문과) 중령을 발탁했다’ 내용을 지적하면

* 5월 15일이 아니라 5월 6일, 제9연대 연대장이 김익렬 중령에서 박진경 중령으로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이때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중령과 함께 제9연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임부택 대위는 명령상으로만 공석중인 1대대장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박진경 중령의 요청으로 연대 작전과장이 됩니다.

이러한 제9연대장의 전격교체는 4·3폭동진압을 앞두고 그간 폭동진압명령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군정의 최고책임자 앞에서 치안책임자인 조병옥 경무부장과 먹살을 잡고 육박전을 벌여 고위급 대책회의를 망쳐버린 김익렬 연대장을 문책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 ‘제11연대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과 좌익세포들이 암약하는 와중에서도 부대를 한림, 서귀포, 성산포에 분산 배치해서 입산 주민들의 하산 종용과 민심 수습을 위한 선무공작 그리고 부락별 자위대를 조직해서 주민과 게릴라의 분리와 고립화를 꾀했다.’의 내용에서 지적을 하면

* 부락별 자위대는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를 성공리에 하기 위에 만든 향보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향보단은 후에 민보단이 되어 제주에서는 1948년 10월 11일에 창설되어 군경의 토벌작전을 보조하고 부락의 자체경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1948년 6월 18일 박진경 대령이 숙소에서 제3중대장 문상길(충남 출신, 학도지원병 출신 일본군 하사관,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생) 중위가 사주한 연대 내부의 좌익 세포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⁷⁾ 이는 군내 좌익세포에 의한 국군 최초 고급장교의 암살이었다.’의 내용을 지적하면

* 문상길(1926~1948)은 충남 출신이 아니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출신으로 제주도 주둔 제9연대의 남로당 프락치 군인으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의 주모자였습니다. 만주에 본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도 제주에 와서 총각행세를 하면서 서귀포에 있는 고양숙이라는 제주고녀 출신을 유혹하여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제9연대 남로당 장교 프락치 문상길의 애인 고양숙을 살펴보면

문상길은 모슬포 주둔 제9연대 소대장·중대장 시절 서귀포 처녀와 열애에 빠졌습니다.

그 처녀가 제주고녀를 나온 고양숙(高良淑, 18)⁸⁾이었다. 그의 연애소식은 부대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7)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서울 : 그루터기, 1996), p.40

8)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③, (서울 : 전예원, 1995), p.205.

문상길 중위의 약혼녀⁹⁾는 서귀포에 살면서 떡, 과일, 음료수 등을 가지고 거의 매주 면회를 왔습니다.

고양숙과 절친인 강애숙¹⁰⁾씨는 1932년생으로 서귀포가 고향으로 문상길의 애인 고양숙과는 같은 고향(첫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당시 ‘문소위’(문상길 중위)는 키가 작고 얼굴이 잘 생기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가 약혼녀 고양숙의 집을 들을 때면 자기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었다고 합니다.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으로 남로당 장교 프락치 문상길 중위의 애인 고양숙(18세)과 그녀의 어머니 윤장옥(45세)이 헌병대에 연행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¹¹⁾



윤장옥의 남동생 윤태준(대령 예편. 제9연대 제1기생)은 현역 육군 대위일 때 권총을 차고 서귀포경찰서에 방문하여 누나 윤장옥의 체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그 당시의 서류를 보자고 항의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¹²⁾

9) 월간조선 8월호. 2012. p.268.

10) 박윤식. 참옥했던 비극의 역사 1948년 제주4·3사건. (서울 : 도서출판 휘선, 2011), p. 170.

고양숙의 절친인 강애숙은 강길화(제주도초등교원양성소 3회. 법환교 교사. 1932.02.06.)으로 추정된다.

11) 윤태준(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대령 예편. 윤장옥의 동생)의 1995년 증언. 국방경비대 제9연대 제1기생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③. (서울 : 전예원, 1995), p.218.

12) 제9연대 3기생 한성택 소령 증언. 2022. 07. 15

문상길의 약혼녀 고양숙(高良淑)이 연행된 것은 문상길 중위가 제9연대 안에 있는 80여 명이 넘는 남로당원과 오일균 소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애인을 대신 희생시키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9일 통위부 고등군법회의 재판정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김익렬 중령과 문상길 중위의 애인인 고양숙¹³⁾도 출석,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상길은 좌익성향의 국군준비대에 입대하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직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국군 준비대가 해산되자 국방경비대 대구 제6연대 제1기생으로 입대하여 조선 경비사관학교 3기생(군번 10427)으로 졸업한 그는 4·3사건 당시 제주도 모슬포 9연대에서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중위: 당시 23세)과 모병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1948년 6월 이래 제11연대장과 제9연대장을 겸했던 최경록 중령은 부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나섰고, 부임 일주일만에 박진경 대령의 암살범으로 문상길 중위와 정보과 선임하사관 최상사를 색출하는 전과를 올렸다.¹⁴⁾ 이어서 당시 제9연대 제1대대장을 거쳐 수용소 소장으로 이적행위를 주도했던 좌익 거두 오일균(일본 육군사관학교 제61기) 소령을 체포하는데도 성공했다.’의 내용을 지적하면

* 11연대장 박진경이 부대정비의 일환으로 4개 대대중 2명뿐인 대대장중 제1대대장 오일균 소령을 5월 18일경에 총사령부로 전출시켰습니다¹⁵⁾.

이에 대하여 남로당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문건에는 “오일균 소령은 1948년 5월 17일경 남로당인민해방군에게 MI소총 2정, 동 탄환 1,443발, 카빈총 2정 동 탄환800발을 공급했다.¹⁶⁾ 미 군정과 통위부는 김익렬 연대장과 오일균 대대장을 육지부로 보낸 후 악질 반동 박진경을 11연대장으로 임명하여 토벌작전을 개시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¹⁷⁾ 오일균은 대대장직에서 해임되자 무장대에게 무기와 실탄을 공급해 주고 제주도를 떠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숙군 시 오일균 소령은 1949년 2월에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49년 12월 1일에 처형되었습니다.¹⁸⁾ 오일균 소령 체포에 관하여 김종평(예편 후 김종면으로 개명) 중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오일균은 여순반란사건 후 내가 잡았다. 당시 나는 현재의 호텔 신라의 자리에 있던 박문

1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③. (서울 : 전예원, 1995), p.210.

14)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29쪽.

1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5. 24

16)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제주 : 대림인쇄사. 1995), p.80.

17) 상계서. p.83.

18) 한용원. 창군. (서울 : 박영사, 1884), p.130.

사에서 SIS 교육을 받고 있었다. 김창룡, 오일균 등이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날 정보국에 들어오니 백선엽국장이 ‘오일균이가 같이 있는데, 잡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당시 여순사건의 여파로 한창 숙군이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마땅하게 잡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한가지 꾀를 냈다. 오는 원래 이리 3연대쪽 출신이었는데, 당시 반란군이 이리 쪽으로 북상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박문사에서 ‘이리에 가야하는데, 누구 지리 잘 아는 사람 없느냐’고 소리쳤더니 예상대로 오가 손을 번쩍 들었다. 재빨리 그를 지프차에 태워 바로 헌병대에 넘겼다.¹⁹⁾

☞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제11연대 이탈에 따른 병력 보충을 위해서 대구 주둔의 제6연대 2개 중대 350명을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의 내용을 지적하면

* 경비대총사령부는 제주출신이 주력인 본래 9연대 병력(제1대대)을 제11연대에서 배속 해제하여 독립시켰고, 제3여단 5연대에서 1개대대(대대장 김창봉)와 6연대에서 1개대대(대대장 이철원) 등 2개 대대를 차출, 7월 21일에 부산에서 선편으로 제주로 이동시켜 9연대에 소속시켰습니다.²⁰⁾

☞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수립했다. 즉, 중산간 지대의 생업 농민들을 하산시켜 수용소에 수용한 다음 이들의 성분을 분류해서 좌익분자에 대한 사상 선도를 실시했다. 또한, 좌익 활동의 전향자를 앞세워 인민해방군에 대한 뼈라를 살포하는 등 선무 및 귀순공작에 착수했다. 송요찬 중령이 추진한 해안선 5키로미터 이외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과 선무공작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의 내용을 지적하면

* 연대장 송요찬의 제9연대 초토화 작전이 아니라 1948년 11월 17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²¹⁾, 뒤이어 11월 23일에는 계엄포고령이 내려짐에 따라 중산간지역에 소개령²²⁾이 내려왔습니다. 소개작전이 정확한 단어입니다.

중산간부락의 소개 조치는 중산간부락의 주민들이 인민유격대의 보급원과 정보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단행된 것입니다.

‘초토화 작전’은 진보좌파들의 주장입니다.

19) 백선엽, 실록 지리산, (서울 : 고려원.1992), p.143.

20) 주한미육군사령부, G-2 Weekly Summary, No. 149, 1948. 07. 23 보고.

21) 신상준, 제주도4·3사건Ⅳ, (제주: 경신인쇄사, 2010), p.231.

22) 상계서, p.219.

☞ 발표문에서 누락된 제9연대의 진압작전 장전리 전투를 소개하면

* 제9연대는 군·경 프락치 사건을 적발한 다음날인 10월 29일 모종의 행동을 위해 애월면 장전리에서 회합중인 남로당인민유격대 200여명을 급습하여 8시간의 교전 끝에 100여명(또는 13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장전리 전투와 관련된 9연대 군수과장 김정무의 증언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9연대 군수참모인 나는 어느날 밤에 연대장으로부터 “날이 밝기 전에 머리띠 3,000개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포목상에서 천’과 ‘양복집에서 재봉틀과 재봉사’ 등을 징발하는 방법으로 밤샘을 하여 흰색과 빨간색의 머리띠 3,000개를 만들어서 이튿날 3개대대에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는데 연대장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기에 또 뭐가 잘 못 됐는가 하고 긴장하였는데, “큰 전과를 올렸어. 수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보니 그간 피아간에 복장이 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웠는데, 작전에서 연대장이 ‘7시에는 빨간색’ 또는 ‘12시에는 흰색’ 이라고 무전으로 명령하면 9연대원은 모두 이 지시에 따라 머리띠를 매야 하고, 색깔이 틀린 놈은 적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총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5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연대장이 나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²³⁾』

☞ 발표문에서 누락된 제2연대의 진압작전 의귀리전투와 녹하악 전투를 소개하면

* 의귀리 전투

23) 김정무(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제9연대 군수과장, 2002. 9. 25.) 증언

1948년 12월 26일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1대대 2중대가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26일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1대대 2중대가 주둔, 학교 옥상에 모래가마니로 진지를 만들고 사진과 같은 동종의 기관총(LMG)이 설치되었습니다.

1949년 1월 12일 새벽 남로당 인민해방군 도당의 서귀포쪽 유격대와 남원면당의 자위대 200여 명이 모두 동원되어 공격했지만 설재련 중대장은 사전 정보를 입수 대기 하고 있다가 2시간의 접전 끝에 남로당자위대 및 인민유격대 51명을 사살(미군측 기록)하고 패퇴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 4명 전사(일등상사 문석춘, 일등중사 이범팔, 이등중사 안성혁, 이등중사 임찬수)하고 중대장(2중대장 설재련) 등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남로당인민유격대는 이 기습 공격에 실패함으로써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만큼 남로당 군사세력은 이 기습공격에 전력을 쏟은 셈인데 이 중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함으로써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전투가 끝나고 오전 11시에 순시중이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응준 장군이 방문하였다고 전합니다.

☞ * 녹하악 전투

유재흥 전투사령관은 전투대대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2연대의 현직 대대장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육사 1기중에서 전투대대장을 임명하여 전투지휘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전투대대장에 임부택 소령, 제2전투대대장에 최경만 소령, 제3전투대대장에 고근흥 소령이 임명되었고, 육사 2~3기생들인 현직 대대장들은 행정지원 등 후방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라산의 남로당인민유격대 주력이 언제 격파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3월 말에 제1전투대대 4중대가 수행한 중문 북쪽의 녹하악 전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전투사령부는 3월 말에 유재흥 사령관이 4개대대를 동원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작전개요는 3개대대(2연대 2대대, 3대대, 6여단 유격대대)를 북에서 남으로 공격토록 하고 남쪽에 있던 1개대대(제1대대)를 차단부대로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유재흥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였고 유 대령은 L-5 정찰기를 타고 공중지휘하다가 에어포켓을 만나 추락하였는데, 다행히 정찰기가 나무에 걸치는 바람에 중상을 면하고 조종사와 함께 정찰기를 탈출하여 하산하다가 긴급출동한 구조대에 구조되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제1대대 제4중대는 차단임무를 받았다가 야전에서 대규모의 남로당인민유격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교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이 전투에 참여한 남로당 빨치산 무리들은 이덕구가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주력과 중문면의 자위대가 합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녹하악 전투는 이 전투를 지휘한 제2연대 1대대 4중대장 김주형 중위의 수기를 보면



“1949년 3월 말, 제2연대 2대대와 3대대 및 6여단 유격대대 등 3개대대가 북제주군과 성산포 등 3개방향에서 공격하고, 제2연대 제1대대가 남제주군의 중문 서북방 적악-노로악-한대악을 연하는 선을 차단하여 무장대를 포착 섬멸하는 요지의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작명이 하달되었다. 나(제1대대 4중대장)는 제1대대 전투대대장 임부택 소령에게 ‘녹하악(鹿下岳)과 절악(折岳) 일대를 야간수색을 하고 13시까지 계획된 차단선을 점령하겠다’고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는 이미 출동한 중문리 동북방에 있는 제1중대 기지에서 숙영하고 새벽 3시에 출동하였다. 컴컴한 밤길을 약 한시간 정도 행군하여 녹하악 동쪽 고개마루에 당도할 찰라 무장대와 마주쳐 조우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무장대가 고개 정상에 선점하고 사격하는 상황이라 나는 불리함을 깨닫고 선두의 1개분대만으로 적을 견제토록 하고 주력은 포복으로 우회공격하여 녹하악 정상을 선점하였다. 고지정상에서 지형을 살펴보니 동북쪽 멀리않은 곳에 절악이 있음을 알아내고 최의경 소위에게 기관총 2정과 60미리 박격포 1문을 주면서 1개소대로 절악을 점령하고 적 주력에게 집중사격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새벽 5시경, 중대는 고개마루의 적에게 집중사격을 하였다. 약 1시간여의 격전 끝에 적은 10여구의 시체를 버리고 물러났으며, 우리는 고개마루를 확보하고 수명의 중상포로를 획득하였다. 중상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무장대는 제주도인민군사령관 이덕구가 진두지휘한 1,000여명이며, 작전목적은 제1중대 기지를 유린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전날 밤 20시에 인접한 안덕면사무소와 지서를 습격, 방화하였다. 그러면 인접의 제1중대가 이틀날 출동할 것이고, 기지에는 소수의 잔류병력뿐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기지를 유린하고 무기, 탄약, 식량, 피복 등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간이라 행군이 늦어져 새벽 4시경에 고개마루에 도착했는데 뜻밖에 국군과 마주쳤다는 것이었다. 고개마루에서 물러난 적은 약간 후퇴하여 응사해 왔다. 그런데 이때 절악을 점령한 최의경 소위의 특공소대가 측후방에서 적에게 집중사격을 가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한 무장대는 다시 1km 정도 후퇴하여 동에서 서남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의지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지근거리에서 숨막히는 격전이 11시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돌격뿐이라 판단하고 절악의 최 소위에게 기관총과 박격포로 엄호사격을 지시하고는 11시 30분 경에 돌격명령을 내렸다. 적은 우리의 일제 돌격에 앞도된 듯 분산되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차후 집결지를 정하지 못한채 뿔뿔히 흩어졌으며, 도처에서 각개격파되므로서 이후로는 대병력에 의한 작전이 없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사살 178명(유기시체), 소총(99식, 38식, 칼빈 등) 203정, 권총 4정, 기관총 2정, 일본도 3본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날 작전을 공중지휘하던 유재흥 사령관은 타고있던 비행기가 추락하다가 한라산의 소나무에 걸려 가벼운 상처만 입은 일이 있었다.²⁴⁾

24) 가. 김주형. 제주도지역 인민군인 공비토벌작전 실상.

백선엽은 그의 저서『실록 지리산』에서 “녹하악의 새벽전투가 운명을 갈랐다”라는 제목으로 이 녹하악 전투를 소개하므로서 이덕구가 지휘한 녹하악 전투가 남로당빨치산들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가한 전투였음을 기술하였습니다.

나. 백선엽, 실록 지리산, (서울 : 고려원.1992), p.138..